

전례 공간의 영성

기억과 공간의 정화, 자리의 영성

심홍보

전례 공간의 영성

기억과 공간의 정화, 자리의 영성



목 차

추천의 말 • 6

머리말 • 8

1. 주님의 집 – 성당 • 11

2. 하늘의 문 – 성당문 • 21

3. 성(세)수를 이마에 적시며 – 세례(성수)대 • 30

4. 주님 앞에서 – 의자와 장궤틀 • 40

5. 새 생명의 은총 – 고해소 • 48

6. 성찬을 준비하며 – 제의(구)실 • 58

7. 그리스도 우리의 빛 – 촛대 • 66

8. 희망의 서곡 – 주수대 • 74

9. 주님 사랑에 감화되어 – 봉헌대 • 84

10. 성인의 발자취 – 성화상 • 93

11. 새로운 노래를 – 성가대 • 102

12. 전례에 봉사하며 – 해설대 • 110

13.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 독서대 • 118

14. 주님의 제단에서 – 제단과 제대 • 128

15. 주님의 길 – 십자가 • 140

16. 숨어 계신 예수님 – 감실 • 150

17. 다시 세상을 향하여 – 파견문 • 161

부록1 미사 집전 전·후 기도 • 171

부록2 전례 봉사자들의 기도 • 173

부록3 참고문헌 • 183

부록4 '전례 공간의 영성'을 읽고 나서 • 184

추천의 말

이번에 심홍보 신부님이 '기억과 공간의 정화, 자리의 영성'이란 주제로 '전례 공간의 영성'이란 책을 펼쳐냈습니다. 이 책은 전례에 관한 새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전례자들을 양성하는 교재가 아니라, 피정에 참여한 것처럼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기도에 빠지게 해줌으로써 전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줍니다.

신부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 줍니다. 전례가 봉헌되는 공간과 전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례의 각 공간과 사물을 우리의 의식 안으로 하나씩 불러 들여, 각각의 공간과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생생하게 살아 오르게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례의 능동적 참여와 쇄신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도자들을 포함하여 제단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전례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역할의 의미와 그 비중을 재인식하

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게 하느님 백성인 교회에 봉사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더 성실히 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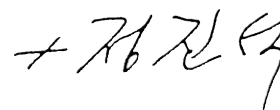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교우들이 단순히 미사에 참례만 하고 돌아가는 차원을 넘어 전례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각 부분에 친근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전례에 참여하여 회중 속에서 주어진 기도문을 외우며 형식적으로 참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례 공간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기억들을 주고받으며 매순간을 주님께 봉헌하고 전례 안에서 주님과 체험을 새롭게 엮어 나가기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친근함과 개인적인 체험을 일상으로 연장하여 자신의 삶과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께 전례적 삶을 봉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활동 중에 틈틈이 책을 펴내는 신부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부님의 노력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정진석



머리말

1996년 새 미사통상문을 따라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한 영성적인 의미를 ‘미사의 영성’이란 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사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여, 미사의 각 부분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가끔 그 책을 다시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지?’ 하면서 스스로 놀란다. 주님의 성찬에 관한 내용이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다.

일전에 가톨릭 교리 신학원에 살면서 주말에는 함께 사는 신부님들과 미사를 준비하고 봉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사 한 대가 봉헌되기까지 각 본당에서 수녀님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왔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었는지 마음으로 다가왔다. 성찬봉사단, 전례단, 독서단, 미사해설단, 제대회, 헌화회, 성가대, 복사단 등 늦게나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특별히 드러나지 않아도 숨어서 성찬을 준비하는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며, 오늘도 전례 거행을 위해 제단에 봉사하는 이들의 손길에 주님의 파스함이 전해지길 기도한다.

이 책은 전례를 거행하는 공간(장소, 자리)을 영성적으로 되새겨보

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래서 성당을 향하는 순간에서부터 성당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까지 공간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영성을 순서대로 다루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현실을 봉헌하고 복음화할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의 집[성당]을 찾아, 하늘의 문[성당문]을 열고, 성(세)수를 이마에 바르고 성세서원을 갱신하고[성(세)수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청하며[의자와 장궤틀],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는다(고해소). 그리고 제의와 제구 및 전례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제의(구)실], 촛불을 당기고[촛대], 전례의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고[주수대], 우리 정성을 바치기 위해 봉헌 바구니를 준비한다[봉헌대]. 그리고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성화상],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고[성가대],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전례를 준비시키고 안내한다[해설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독서대] 제대 상에서 주님의 성체성사를 봉헌하며 주님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재현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며[제단과 제대], 병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영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님을 뵈을 수 있도록 성체를 감실에 모신다[감실]. 마침내 전례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에 힘입어 복음화의 사명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실현하기 위해 성당문을 나선다[파견문].

이 책은 혼자서 새겨 보아도 좋고, 전례 관련 공동체원들이 함께 위크숍을 통해 서로를 나누면서 하면 더 좋겠다. 우선 전례의 공간을 사진을 통해 다시 바라보고, 그 공간에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 등을 짧게 알아보고, 기억의 정화에서 전례를 거행하는 그 공간에 머물며 미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물과 장소들을 하나씩 대하면서 떠오르는 기억들을 정화하고, 말씀에서 성경구절을 통해 새로운 각도로 공간을 바라보도록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묵상에서 그 공간과 관련된 의미를 되짚어 보고, 전례(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묵상거리를 제시했다. 새김에서 그 공간과 관련된 영성적인 가르침으로 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명확히 새기도록 했고, 기도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했다. 기도에서 나오는 시편 구절은 성무일도서에 나오는 최민순 신부님의 아름다운 번역을 인용했다. 그리고 부록2의 전례 봉사자들의 기도는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와 인보성체수도회 및 신당동 전례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영성 작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기억도 정화하고, 전례 준비에 더욱 더 정성을 쏟으며,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한층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바란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 원고를 위해 몸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김귀웅 신부님과 삼성동 성당 김현숙님, 읽어주시고 교정해 주신 라병국, 김귀웅, 홍상표 신부님과 강 디모테아, 심 가타리나 수녀님, 가톨릭 교리 신학원 학우들과 삼성동 본당 전례부 여러분들, 기쁘게 추천의 말을 써 주신 정진석 추기경님과 기꺼이 출판해주신 기쁜소식 전갑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1년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삼성동 성당
심흥보 신부



I. 주님의 집

공간 성당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은 원칙으로 성당에 모인다. 그러나 성당이 없거나 작을 경우에는 이토록 큰 신비를 품위 있게 거행하는 데 알맞은 곳에 모일 수 있다. 성당이나 이러한 장

소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알맞아야 한다. 거룩한 건물이나 하느님 예배와 관련된 물건은 참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실재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8항).

기억의 평화

큰 이모의 손에 이끌려 성당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성당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땐 유아교육이란 이름의 유치원행이었지만, 내 신앙의 새싹이었고 그 싹이 자라고 자라 오늘 나의 삶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으려 성당에 온다. 사람들이 성당에서 평화를 찾고 기대하는 것은 성당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 성당에 오는 자신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리라는 희망에서 비롯된다. 성당에서 옳은 일이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또한 성당 밖의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성당 안에서 편하게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만도 아니지만, 여전히 나는 성당에서 평화를 찾고 있고 편안해진다.

성당 다니는 신자들이 모두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닌데도, 평화를 찾아 성당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사에서 약속하는 평화가 자신들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절망감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자신들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리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한계와 무력을 겪으면서도 인생의 충만과 완성을 향해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실제로 주님에게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성당과 관련된 기억이나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가졌던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씀 솔로몬의 기도(1열왕 8,23-53)

8 ²³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²⁹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³⁰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³¹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³³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³⁵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은 탓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³⁷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름병과 캄부깃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와 누리 떼가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³⁸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⁴¹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당신 이름 때문에 먼 고장에서 찾아오거든, ⁴² 곧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당신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이 하신 일을 듣고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⁴⁴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려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⁴⁷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몸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사로잡아 간 자들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⁴⁸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⁵² **눈을 뜨시어 당신 종의 간청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목 상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의 종인 솔로몬과 그 백성과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고, 그의 기도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 신학이 보인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되서는 결코 안 될 것을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요, 다른 이와와 관계와 무관하게 기도자만의 요청대로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는 **첫째**, 주 하느님께서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이심을 고백한다(23절). 그리고 주 하느님은 하느님의 성실성과 연대성을 가지고 당신 백성에 대한 계약을 지키신다(신명 7,9,12; 느헤 1,5; 9,32; 다니 9,4 등 참조)는 것을 고백한다.

둘째, 하느님께서 과거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대대로 지키신 분이심을 상기시키며(24), 미래에도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시리라고 청한다(25-26).

셋째,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이 지은 성전에 국한하여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인정한다(27,30절; 이사 66,1; 사도 7,48; 17,24; 히브 9,11-

24 참조; 하느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 요한 1,14; 2코린 8,9 참조). 그러면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은(다니 6,11 참조) 실제로 그 성전에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여겨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청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청한다(28-30,44-45).

넷째, 그는 죄인들이 주님께 청할 때, 주님께 청하는 이의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한다. "죄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십시오"(32).

다섯째,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벌을 사해달라고 청한다(33-36,46-50).

여섯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주님께 청할 때,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길 청한다(37-39). 그리고 그 은혜에 백성들이 보답하리라는 약속도 한다(40).

일곱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 청하는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운 응답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한다(41-43). 여기 드러난 구원의 보편주의는 열왕기 하권 5 장에서도 희미하게 나타나며, 유배와 유배 이후에 더 명확해 지고(이사 56,6-7; 즈카 8,20-23; 요나서와 룻기 참조), 신약에 와서 완전히 드러난다. 성조 개인의 하느님에서부터 우리 부족의 하느님, 우리 민족의 하느님에 이어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하느님으로 알아모시게 되는 신관의 확산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참 하느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참 하느님이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한다(43).

여덟째, 주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언명하며 자신들을 이민족에게서 구해내신(과거) 주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현재와 미래의 하느님의 현존) 참 하느님이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당조짐을 한다(51-53절).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공평무사하게 심판해 주시며, 고통을 덜어주고 억울함을 밝혀주시길 청한다. 아울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

든 이들이 주님께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모든 이의 참 주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주시길 청하고 있다.

1. 성당을 언제 어떤 기회로 처음 찾았는가? 그때 나의 마음을 기억해 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지 헤아려본다. 내 신앙을 길러주신 주님과 역사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매순간 함께해 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리자.
2.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주님께 대한 굳은 신앙 안에서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성당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면서도 성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주님의 집'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기대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모아 주님께 봉헌하기로 하자.
4.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내면의 평화와 위로 외에, 성령의 궁전인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5. 성당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뵈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당을 주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새김 요한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기도 시편 121(122),1-9

후렴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라.

- ¹ 주님의 집에 가자 할 제 *
나는 몹시 기뻐노라.
- ²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은 이미 서 있노라 *
- ³ 너 예루살렘은, 그 짜임새 멋지게 이룩된 도성.
- ⁴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 ⁵ 거기에는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
다윗 가문 옥좌가 놓여 있도다.
- ⁶ 예루살렘 위하여 평화를 빌어 주라 *
“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 있기를,”
- ⁷ 너의 성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
너의 궁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
- ⁸ 내 형제, 벗들 위하여 말하노라 *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 ⁹ 우리 주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
너의 모든 행복을 나는 비노라.



2. 하늘의 문을 열며

공간 성당문

성당의 장식은 겉보기에 화려하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고상해야 한다. 장식에 관련된 물건을 고를 때에도 그 재료의 품질에 유의하면서, 신자들의 교육에 유익하고 거룩한 장소로서 존엄성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92항).

기억의 정화

새 아침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올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루를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두툼한 성당문을 연다. 독서대의 성경과 제대 그리고 십자가와 감실 안에서 주님께서 반갑게 맞이하신다. “어서 와라. 지금 오니?” 아직 캄캄한 성당. 감실 등에서 비쳐오는 빨간 빛이 내 눈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역이 펼쳐진다. 마치 하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서는 기분으로 성당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간밤의 갈망, 분노가 내 발에 앞서 달려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게 해주시는지 새삼 몸으로 재확인하며 기도 보따리를 풀다.

우리에게 성당문이나 성당을 드나들면서 겪었던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하늘의 문이로구나(창세 28,10-22)

28 ¹⁰야곱은 브에르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¹¹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¹²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¹³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사악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¹⁴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¹⁵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¹⁶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¹⁷두려움에 싸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¹⁸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¹⁹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

은 루즈였다. ²⁰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
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²¹제가 무사히 아
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²²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
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목 상

첫째, 형제의 비극

창세기 25장 29-34절에서 형 에사우는 허기찬 배를 움켜
쥐고 들어오다가 때마침 동생 야곱이 끓이고 있는 붉은 콩죽
을 달라고 한다. 그러자 야곱이 “먼저 만아들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라고 요구한다. 장자권(만아들의 권리)이라는 것이 형
이 판다고 하여 형이 동생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형 에사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생의 요구대로 맹세를
하고서 빵과 붉은 콩죽을 받아먹었다. 우리 속담에도 맏에게

쫓겨 방에 들어온 꿩은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야곱은 남의 약
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다.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사악이 돌아가실 때 야곱으로 가장하고 형이 장자로서 받
을 축복을 가로채고 대신 자기가 받는다. 그 시대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과 사람
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유물을 축복을 받는 자에게 넘겨주
는 일종의 후계자 지명식과 유산 상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뒤
늦게 이를 알아챈 에사우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어머니 레베
카에 의해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진다.

둘째, 죄인에게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약속

이 28장부터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힘든 도피 생활이 시작
된다. 자기 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순
간, 야곱은 자기가 차지한 복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피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
려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기도 어려
워 광야로 도망쳐 노숙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꿈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짓
을 했던 비열한 야곱을 야단치지 않고, 야곱에게 ‘어디를 가
든지 함께 있어줄 것’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오실 것’을 약속
해 주신다(13-15절). 이에 야곱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
념 기둥을 세우고 하느님께 서원한다(18-22절).

셋째, 인간사와 하느님의 섭리

그런데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과 에사우의 사건을 사전에 막지 않으셨을까? 하느님께서 선한 이들의 선한 일을 보고 흐뭇해하시듯이,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을 아파하시면서도 막지 않으신다. 그 대신 죄인 스스로가 인간 세상에서 발각과 처벌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기워 값으라고 하시는 듯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선택받은 것 같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뒤에서, 또는 그 말년에 홀로 외롭고 힘겹게 자기 행위의 결과를 대면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분열의 고통을 짊어지고 겪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취한 그 성공 때문에 형제들과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보아 왔다. 여기서는 야곱의 도피생활이 펼쳐진다.

그런가 하면 에사우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핑계로 올바르게 못한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야곱과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에사우는 자기 길을 곧게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에사우는 핫김에 이민족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 버린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마태 5,45)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죄를 뉘우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2베드 3,8-9, 14-15).

넷째, 야곱의 모멸 찬 새 생활

도피자의 생애가 외삼촌의 집이라고 해서 결코 편안할 리 없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에 7년 더해 14년을(29장), 재산을 모으기 위해 또 6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거기서 야곱은 꾀를 부려서 자기 재산을 불리지만(30장), 다시 장인과 외갓집 사람들의 의심과 질시를 사서 떠나게 된다. 야곱은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산악 지방을 통해 도망쳤다. 장인 라반의 추격을 받고 잡혀서 장인과 다시 화해를 하고 계약을 맺긴 했지만, 야곱이 돌아갈 길이 평탄하지 않다(31장).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사우를 다시 마주

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형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선물을 들려 먼저 보내어 형의 환심을 사서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한다(32,1-22). 그날 밤, 야곱은 그 유명한 ‘하느님과의 씨름’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32,23-33). 프니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새 땅에 다시 들어갈 신고식 같은 것을 치른다. 결국 야곱은 에사우의 환심을 얻어 용서를 받고, 스켄에 자리 잡게 된다(33장). 그리고 35장에서 훗날 베텔로 올라가 자리를 잡는다(35장). 마치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기라도 하듯이, 갇은 고생을 다 하고서야 뒤늦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1. 오늘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주님께 어떤 기도를 바쳤는가?
2.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위로로 내 안에 은밀한 기쁨이 가득한가?
3. 주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선행 마음이 솟아오르는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4. 주님과의 순간에 얻은 마음과 말씀을 세상이란 바람에 휩쓸려 잊어버리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호호 불며 가슴 깊이 새기고 나서자.



새김 요한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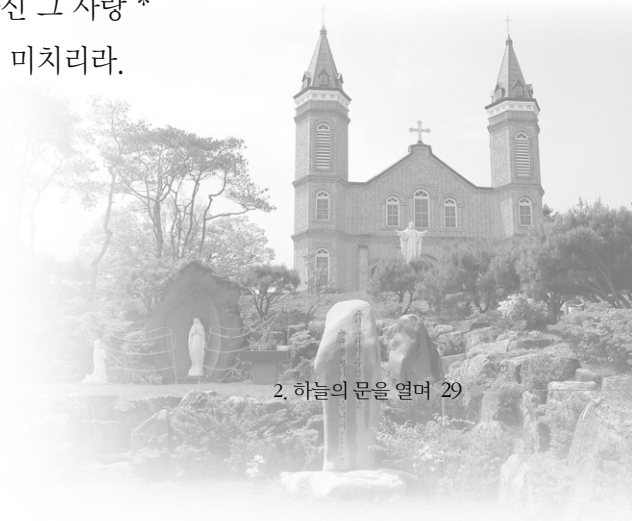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기도 시편 99(100),1-5

후렴 주님은 우리 하느님, 우리는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여라.

- ¹ 온누리 반기어 주님께 소리쳐라[†]
- ² 기쁨으로 주님 섬겨 드려라. *
춤추며 당신 앞에 나아가라
- ³ 주님은 하느님 너희는 알라[†]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것 *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 떼이여라.
- ⁴ 고마우심 노래하며 당신 문으로[†]
찬미하며 들어가라 그 뜰 안으로 *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 ⁵ 주님은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
당신의 진실하심, 세세에 미치리라.





3. 성(세)수를 이마에 적시며

공간 세례(성수)대

기억의 정화

초등학교 3학년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지 않아서 유치원 때부터 교리를 받고서는 초등학교 3학년 성탄 때에야 겨우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땐 뭐가 뭔지 몰랐지만, 요즘 세례성사를 받고 성령의 감화로 울고 자신의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례성사의 은총을 깊숙이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떠올려지는 장면들이 있다. 마치 킹콩이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물속에서 건져 입으로 바람을 불어 물기를 날려주듯이, 우리가 감추고 싶은 점들, 좀처럼 헤어내기 힘든 죄악, 쉽게 진보되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 그리고 결코 녹록치 않은 사회 현상 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에게 세례성사나 성수(기도)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에제 36,24-28)

36 ²⁴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²⁵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²⁶**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²⁷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²⁸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목 상

첫째, 인간의 불완전성과 나약성

일할 때마다 임지에서 느끼는 것은 ‘나보다 능력 있고 더 좋은 신부님이 오셨으면 이분들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산다. 일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땐 일처리도 미숙하고 대인관계도 원만치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비단 이런 감정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수도자들의 소망에서도 듣게 된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면, 그에 걸맞은 능력도 주시지.” 그런가 하면,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은 평신도 봉사자들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교회법의 내용에 자신들이 부적합하다고 읊소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라는 자위성 표현을 자주 보고 듣는다. 이 표현을 표출하게 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나약성은 가끔 죄스러운 감정마저 동반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관련된 순수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샘솟는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저 못나서 그런 것인데 누구를 탓하랴 싶다.

둘째, 새로운 희망

그런데 다른 한 면을 발견한다. 아니 다 아는 사실인데도 새삼스럽게 다시 새겨진다. 그동안 아니라고 자신을 억압하고 우기면서 부인했던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인정한 덕분이라고나 할까. 정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면, 이 불완전성과 나약성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나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욱 더 희망을 둘 수 있게 된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긴다.

사도 바오로는 율법과 은총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로마 7,15,17).

그러면서 그 원인을 하느님에게서 찾으려 하며, 인간의 불완전성과 나약성에 대해 죄책감을 안겨주기 보다는 희망을 찾도록 안내한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로마 8,20).

셋째, 희망을 이루는 믿음

그리고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24-26절)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완전성과 나

약성이 오히려 희망을 간직하도록 하는 원천일 수 있으며, 이 희망을 찾아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하느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에게 하느님 사랑의 섭리로 열매를 맺어주시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28절).

넷째, 희망 앞에선 우리의 현재 주소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진정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꿈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결점조차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나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 육체의 노쇠와 함께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나태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고 활기차고 의욕이 넘칠 때의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다. 더군다나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반 복음적 환경의 세상 앞에서 나는 더 없이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과연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넷째, 다시 또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

에제키엘 예언자는 불완전성과 나약성으로 쉽사리 죄악에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루 빨리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기라도 하는 듯 이러한 위로로 준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에제 36:25-27).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리라.”

다섯째, 세례성사

세례성사를 기억하며 간구한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가 저지른 지난날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죄악 그리고 사랑과 배려보다는 경쟁과 헤게모니 장악으로 뒤덮인 세상, 인정과 격려보다는 지적과 비난으로 점철된 비 그리스도교적 상황을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채워주시고, 오늘부터 새로

운 몸과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희망을 하나씩 이루어나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한다.

주님, 저희를 굽어보시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며,
못난 저희를 헤아려 주시어,
저희가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과오를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해 주소서.
또한 주님께 향한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어
저희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살면서 다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어
주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 찬미받으소서. 아멘.

1. 오늘 성(세)수를 바르며, 씻어야 할 내 죄는 무엇인가?
2. 오늘 성(세)수를 바르며, 버려야 할 내 악습은 무엇인가?
3. 오늘 성(세)수를 바르며, 무엇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살 고자 하는가?
4. 오늘 성(세)수를 바르며, 주님께 청하는 은총은 무엇인가?



새김 요한 3,5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도 시편 41(42),2-12

후렴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오리까.

²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³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오리까.

⁴ “네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 할 때 *

자나깨나 땀이런 듯 눈물이오이다.

⁵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던 그 가운데†

무리에 섞인 이 몸 앞장서 하느님 집으로 갔었건마는 *

그 일을 되새기며 마음은 속에서 녹아 나나이다.

⁶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

내 낮을 살려 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⁷ 내 안의 영혼이 시름을 못 잊습기에†

요르단과 헤르몬 땅 미살의 산에서 *

돌이켜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⁸ 지등 치듯 폭포 소리에 심연은 심연을 부르는데 *

당신의 파도와 물살들이 내 위로 흘러갔나이다.

⁹ 주께서 당신 은총 낮에 내려 주시면†

나는 밤에 당신을 노래하리다 *

내 생명의 하느님을 찬송하오리다.

¹⁰ 하느님께 아뢰오니 *

“내 바위시여 어찌하여 이 몸을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놀려 *

서럽게 지내야 되오리이까.”

¹¹ 시새우는 자들이 나를 놀리며†

“네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 할 때 *

내 뼈가 모두 다 무너 나나이다.

¹²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

내 낮을 살려 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4. 주님 앞에서

공간 의자와 장궤틀

신자들의 자리는 신자들이 거룩한 전례에 몸과 마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해야 한다. 신자들의 자리에는 원칙으로 장궤틀 또는 의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지정석은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새로 지은 성당의 장궤틀이나 의자는 신자들이 거행의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동작과 자세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영성체하러 나아가는 데도 편리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자들이 사제, 부제, 독서자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현대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311항).

기억의 정화

아무도 없을 때 성당 문을 잠그고 서서 기도한다. 때로는 걸으면서 주님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또는 제단을 향해 앞으로 걷다가 제단에서 멀리 뒤로 걸어가며 기도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긴장과 설렘이, 뒤로 물러설수록 그리움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장궤틀에 무릎을 꿇으면 허리가 곧아지고 간절함이 더해진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육신이 나를 앓게 한다. 주님 앞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날 가슴 깊이 안아주시는 걸 느낀다. 그러다 가끔 셋세 마니의 베드로처럼 꾸벅거리기도 하지만, 앉아서 기도에 들어간다. 호흡 고르기, 내적 침묵으로 들어가기, 집중하기, 주님 초대하기, 주님 말씀듣기, 주님 만나기, 주님께 위로받기, 주님 새기기……

우리에게 성당에 와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가졌던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나에게 와서 쉬어라(마태 11,28-30)

11 ²⁸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³⁰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목 상

첫째, 막막한 세상

어디 가서 어느 누구에게조차 편하게 말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다. 또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막막해지고 무기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해관계에 휘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좋은 뜻으로 잘하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고 손해마져 입을 땀 더욱 더 허탈해진다. 이렇게 아무도 이해해주

지 않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찾아가 하소연할 수 있고 우리의 들끓는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분은 그야말로 주 예수님뿐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1-12).

둘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우리가 어릴 때, 그저 뵙기만 하면 편안했던 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 주셨던 분, 그 품 안에 있으면 더 이상의 아무런 부러움이 없게 해주셨던 분, 그 어머니의 품같이 편하고 아늑한 그곳이 오늘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이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갈 곳이 있고, 하소연 할 데가 있고, 기댈 곳이 있으니 말이다. 그분은 날 탓하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으신다. 나는 그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잠길 뿐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감화되어 통회하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새롭게 변화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고통과 번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쉼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시 새롭게 나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다. 주님의 품 안에 꼭 잠겨 쉬자.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 새롭게 걸어 나가자.

셋째, 평화의 파수꾼과 연대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나아와 지구촌 곳곳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봉헌한다. 주님께서 몸소 그 슬픔과 아픔, 비극의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그 절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그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길. 그리하여 그들이 그 현장에 사랑이 회복되고, 인격적인 신뢰가 자리 잡아 평화가 다시 안착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며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한다. 그 간구와 함께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와 희생으로 연대하며 힘을 보탠다.

1. 주님께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하소연을 하고 싶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하자. 성당에 갈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연상하며 하자.
2. 주님께 충분한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모두 말기자. 그분이 당신 전부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도록.

3. 기도를 마친 후,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그 안에 오래 머물고 그 위로를 깊이 간직하자. 다음에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고, 이 순간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현존에 더 쉽게 들어가실 수 있다.
4. 아울러 우리가 지금 지구촌 각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주님의 이름으로 연대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인지 헤아려 실천하기로 하자.



새김 요한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도 주님은 살살이 보고 아시나이다(시편 139, 1-18, 23-24).

후렴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¹ 주님 당신은 저를 살살이 보고 아시나이다.[†]

² 앉거나 서거나 매양 저를 아옵시고 *
 멀리서도 제 생각을 꿰뚫으시나이다.
³ 걸을 제도 누울 제도 환히 아시고 *
 제 모든 행위를 익히 보시나이다.
⁴ 말소리 제 혀끝에 채 오르기 전에 *
 주님은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이다.
⁵ 앞뒤로 이 몸을 감싸 주시며 *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시나이다.
⁶ 아심이 너무나 놀랍고도 아득하와 *
 제 힘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⁷ 당신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
 당신 얼굴 피해 갈 곳 어디 오리까.
⁸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주는 계시옵고 *
 지옥으로 내려가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⁹ 새벽의 날개를 이 몸이 친다 하여도 *
 저 바다의 먼 끝에 산다 하여도,
¹⁰ 거기에도 당신 손은 저를 인도하시고 *
 그 오른손 이 몸을 잡아 주시리다.
¹¹ “어둠이나마 저를 덮으소서 *
 빛인 듯 밤이 저를 휘감는다면” 할 때에도,
¹² 어두움 그것마저 당신께는 어둡지 않아[†]
 밤 또한 낮과 같이 환히 밝으며 *
 캄캄함도 당신께는 빛과 같으오리다.
¹³ 당신은 오장 육부 만들어 주시고 *

어미의 복중에서 저를 엮어 내셨으니,
¹⁴ 묘하게도 만들어진 이 몸이옵기[†]
 하신 일들 묘하옵기 당신 찬미하오니 *
 당신은 제 영혼도 완전히 아시나이다.
¹⁵ 은밀한 속에서 제가 지음 받았을 제[†]
 깊숙한 땅속에서 제가 엮어졌을 제 *
 당신은 제 됴됨이를 알고 계셨나이다.
¹⁶ 제 행위를 당신 눈이 환히 보시고 *
 날날이 당신 책에 적으셨으니,
 평생의 첫 하루가 있기도 전에 *
 제 날수는 미리부터 정해 두셨나이다.
¹⁷ 하느님 당신 생각은 알아듣기 힘드오며 *
 헤아릴 길 없을 만큼 많사오이다.
¹⁸ 세어 보자 하여도 모래보다 더욱 많고 *
 끝까지 닿는대도 도로 당신이오이다.
²³ 주님 저를 살살이 보시고[†]
 제 마음을 살피 주소서 *
 저를 시험하시고 제 은밀한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²⁴ 나쁜 길을 걸을세라 보아주시고 *
 영원의 길을 따라 저를 인도하소서.



5. 새 생명의 은총

공간 고해소

고해소의 위치는 가능한 성당 밖에 설치하여 성당 내에서 두 가지 성사가 동시에 집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당 규모에 따라 2군데에 고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고해소에 방음, 환기, 고백 중

표시등, 냉난방, 조명 등을 반영하고 장애우의 사용을 배려한다. 상담실 고해소 설치도 가능하다(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축지침서 고해소).

기억의 정화

어린이들은 첫영성체를 하기 전에 첫고백을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첫영성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첫고백을 한 어린이를 신부님 옆에서 찍으라고 세워놓았던단다. 그런데 그 어린이는 혹시 신부님이 고해성사 때 자기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자기가 그 죄의 주인공인 줄 알아보시면 어찌나하고 촬영 내내 떨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고해소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싫다. 고해실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싫은 것이고, 죄를 지은 내가 부끄럽고 싫은 것인데도 아무튼 싫다. 신자들 들으라고 웃기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고해소에서 가장 정확하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랍니다.”란 말이 어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래도, 그래도 말이다. 고해소를 나올 때의 그 날아갈 것만 같은 해방감, 그 해방감 때문에 우린 고해실로 들어가고 구원이라는 희망을 믿는다.

우리에게 고해성사나 고해소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씀 용서하여라(마태 18,21-35)

18 ²¹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²²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²³“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²⁴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²⁵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²⁶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²⁷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²⁸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²⁹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³⁰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³¹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

다. ³²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³³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³⁴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³⁵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목상

첫째 우리의 벌

가끔 생각해 본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마다 그냥 모르는 체 지나가지 못하고 ‘교육상’이라는 이유로 꼭꼭 지적하고 혼낸다. 그런데 만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하듯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를 짊어내고 혼낸다면,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이가 있을까? 아마,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떤 때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쳐간 이들에게나 그 대

답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속이고 싶어도 속이고 있는 내가 알고, 나를 아시는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니 속임수란 있을 수 없다. 자기마저도 속이는 자기 합리화와 위선이 있을 뿐이지.

둘째, 하느님의 벌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하실까? 요망사항인지는 몰라도, 그분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아마 못 본체하시거나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죄인을 고꾸라지게 해서 발이라도 부러뜨리거나 벼락이라도 쳐서 경고를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말이 맞는 듯싶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곧 돌아오시리라고 하셨던 말을 기억하며 종말심판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말한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9).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 할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치고 또 어느 세월이 구원의 심판이 이루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8절).

셋째, 하느님의 어리석음

대천사 루치펠은 이렇게 용서해주시는 사랑으로 인간을 감화시켜 회개토록 하는 방법론이 허망하고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어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교육 방법에 반기를 들어 지옥으로 떨어져 악마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설은 우리에게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과 잘못하면 죄를 묻고 벌을 주어야 한다는 유한한 인간의 윤리의식을 대비시킨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3-25). 드라마나 문학작품에 나오는 악인이나 남의 모습을 보면서도 배은망덕을 내뽐으면서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거듭 용서해 주신다고 그 용서를 믿고 죄를 점점 더 지으며 배은망덕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로마 6,15)라고 말한다. 베드로 사도도 “그러니 남은 지상 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1베드 4,2)라고 말한다.

넷째, 아무리 다해도 채우지 못하는 의무인 사랑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2 베드 3,15)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14 절)라며 촉구한다. 바오로 사도도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공동번역 로마 13,8)라고 말한다. 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라 5,13)라고 권면한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태어나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 사랑으로 뉘우치고, 주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용서함으로써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자매들을 건져내어 함께 하늘 나라를 이루자.

다섯째, 용서의 기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 제사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꿇어 앉아 용서의 기도를 바치자. 내가 미워했거나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을지라도 결코려운 사람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기도하자. “○○○,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용서를 주고받은 후, 용서의 대명사인 주님께 내 죄의 용서를 청하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고해소로 들어가 주님께 내 죄를 고해하고 성사를 통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 나자.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느님의 어린양의 은총으로 힘을 얻어 그분의 일을 세상 한 가운데서 이어 나가자.

1.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묵놓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가?
2. 용기를 내서 회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는가?
3. 내가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4. 내가 아는 형제자매 중에 악의 세력에 노예가 되어 자꾸만 죄악을 습관처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5. 나에게 손해나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을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겠는가?



새김 마태 18,3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도 시편 50(51),3-21

후렴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³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 ⁴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 ⁵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며 *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삽나이다.
- ⁶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 ⁷ 보소서 나는 죄 중에 생겨났고 *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었나이다.
- ⁸ 당신은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 *
가슴 깊이 슬기를 내게 가르치시나이다.
- ⁹ 히솅의 채로써 내게 뿌려 주소서.†
나는 곧 깨끗하여지리이다. *
나를 씻어 주소서 눈에서 더 희어지리이다.

- ¹⁰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 ¹¹ 내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시고 *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 ¹²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 ¹³ 당신의 면전에서 날 내치지 마옵시고 *
당신의 거룩한 일을 거두지 마옵소서.
- ¹⁴ 당신 구원 그 기쁨을 내게 도로 주시고 *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 주소서.
- ¹⁵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¹⁶ 하느님 날 구하시는 하느님이여†
피 흘린 죄벌에서 나를 구하소서. *
내 혀가 당신 정의를 높이 일컬으오리다.
- ¹⁷ 주여 내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
내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
- ¹⁸ 제사는 당신이 즐기지 않으시고 *
번제를 드리어도 받지 아니하시리이다.
- ¹⁹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께서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 ²⁰ 주여 인자로이 시온을 돌보시고 *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 주소서.
- ²¹ 법다운 제사와 제물과 번제를 그 때에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을 *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이다.



6. 성찬을 준비하며

공간 제의(구)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임무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 입는 거룩한 옷의 차이에서 밖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은 각

봉사자의 고유 임무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사제, 부제, 평신도 봉사자들이 입는 옷은 전례에 쓰기 전에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알맞게 축복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335항).

기억의 정화

아침마다 큰 이모 손을 잡고 성당에 나온 나를 보고 수녀님들께서 교리를 시키고 영세를 시켜서 복사를 서게 했다. 내 키가 너무 작아서 복사를 서면 강론대에 복사모자만 보였다고 한다. 그런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수녀님께서 나를 데리고 내려가 복사옷을 새로 맞춰주셨다. 그때는 아직 한국 전쟁 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터라 수녀님들이 전쟁 미망인들을 데리고 약현(현 중림동) 성당 아래에 작은 봉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옷 외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난생 처음 맞춤복(?)이 생겼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 뒤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우리에게 전례를 준비하면서 또는 제의실이나 제구실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루카 9,28-36)

9²⁸ 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²⁹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³⁰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³¹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³²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³³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³⁴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³⁵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³⁶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목 상

첫째, 서품제의

서품 때 출신 본당에서 서품제의랑 사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신다. 대개 수녀님들을 통해서 서품자 본인은 누가 기증했는지 모르게 제의와 성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발령을 받아 임지로 향했다. 그땐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덩석 받아 입고 나왔지만 지나고 나니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어떤 것은 손수 한 올 한 올 떼서 만든 것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정성에 보답할 정도로 내가 사제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한다.

둘째, 사제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사제생활

사제로 서품되었다고 해서 사제가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제가 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더 그렇다. 신학생 시절 어떤 은사 신부님이 ‘사제는 신자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요즘 들어 거룩한 사제는 커녕 사제로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 본인은 물론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는 뒤에는 천상의 성인들과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수녀님들과 신자분들의 보이

지 않는 기도와 후원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천상의 군대처럼 지상 교회에서도 기도부대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사제 생활을 해나간다고 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제의 차림

제의실에 들어가 제의가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제의를 차리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었는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말로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는 매듭과 매무새 등이 성찬을 준비하는 섬세한 배려와 신심이 느껴진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온갖 정성을 다하는 여인네들의 오롯한 신심(마태 25,10.13 참조)이 전해온다. 그런 차림을 바라볼라치면 내 맘 깊은 곳에서부터 선성과 정성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급하게 차린 옷차림에서는 분주함과 다급함이 전해져 분심이 들지만, 정성껏 세심히 차린 옷차림에서는 고아하고 맑은 신심이 솟아올라 사제가 성찬을 드높이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고, 늦게나마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제대 봉사자들이 제의를 차리면서 바치는 기도와 염원에 힘입어 사제는 진지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께 성체 성사를 봉헌한다. 그리고 신자들의 전례적 쇄신과 몰입을 위

한 여러 장식들과 꽃꽂이 외에도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칠하고, 꺾고, 꽃고, 오리고, 붙이고... 여성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제의실에 다 모여있는 듯하다. 지금껏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 보다는 지적과 불평이 더 많았던 내 모습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넷째, 변모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 얼굴은 물론이고 의복마저 환하게 비추었다(29절).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31절에서 찾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자 하시는 원의 때문이라. 그것도 자신의 개인적인 원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함께 그 일에 대해 나눔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30절).

다섯째, 거룩한 사제, 수도자, 신자

거룩한 사제, 수도자, 신자는 무슨 색이며 어떤 모습일까? 천주교회와 세상이 우리 사제, 수도자,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기쁘게 희생 봉헌하는 것(루카 9,23 참조) 외에는 없으리라.

그래 지난 세월 동안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흥분
 땀 좋은 시절이었다. 이젠 내가 내 몸으로 채워야만 하는 시
 기이다. 그동안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
 논하던 가치 기준을 이제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이다. 그
 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을 보내면서, 매번 변화된 새 삶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야 할 일이 한
 없이 기쁘고 설레기보다 왜 그리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 그
 래서 그런지 더욱 더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게 된다. 주님의
 은총으로 날 주님의 거룩한 사도로 만들어 주시길 간구하며
 오늘을 걸어간다.

1. 전례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신심이 솟아오르는가?
2. 전례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려는 설렘으로 가득한가?
3. 전례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미리 맛보며
 기쁨을 받아 누리는가?



새김 마태 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기도 시편 112(113),1-9

후렴 주님의 모든 성도들아, 우리 주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 ¹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 ²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 ³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 ⁴ 주님은 만민 위에 드높으시고 *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 ⁵ 그 누가 우리 주 하느님께 비길쏜가
- ⁶ 드높이 앉아 계셔 하늘땅을 굽어보시거늘
- ⁷ 없는 이들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
 가난한 이 거름에서 일으키시어
- ⁸ 당신 백성 으뜸들 그 으뜸들과 *
 한자리에 있게 하시었도다.
- ⁹ 돌계집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셨도다.





7. 그리스도 우리의 빛

공간 촛대

모든 거행에서 제대 위나 곁에 적어도 두 개, 또는 특히 주일이
나 의무 축일 미사에서는 네 개나 여섯 개, 또는 교구장 주교가 집
전한다면 일곱 개의 촛대에 촛불을 켜 놓는다. …… 십자가에 달

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와 촛대는 입당 행렬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다(미사 경본 총지침 117항).

기억의 정화

기도를 마치면 제일 먼저 촛불을 끄면서 초다듬기에 재미 들렸
던 시절이 있었다. 촛불로 녹아 약해진 초의 윗부분을 이렇게 누
르고 저렇게 눌러 다시 예쁘고 동그랗게 다듬는다. 그러다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면 촛농이 이쪽저쪽으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손에
떨어져 데기도 한다. 참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녀님들과
전례부원들은 초를 언제 사용했냐고 할 정도로 초를 칼로 다듬어
말끔하고 균등하게 만들어낸다. 거의 예술에 가깝다.

우리에게 초나 촛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눈은 몸의 등불(마태 5,13-16)

5 ¹³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¹⁴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¹⁵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¹⁶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목 상

첫째, 세상의 빛

빛이 되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애를 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듯 마치 심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를 광

고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와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 자신의 방법이 진정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방법이라며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자신을 빛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으박지르며 일을 진행해 나간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도 결국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자신의 영광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의 업적을 이용하기도 한다.

둘째, 주님의 빛

그럼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누구든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이치인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빛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님은 주님이 알고 계신 하느님 나라를 전하면서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분의 희망인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기 위해, 어느 누구를 본인의 원의 없이 희생시키고자 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생해야 하는 방법도 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제화하는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신다. 예수님

은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이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며 그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겨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셨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현세와 물질에 대한 집착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고 살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애정을 나누도록 하셨다. 그럼으로써 어려운 사람들과 어렵지 않은 사람이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또 그분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자연히 어렵지 않은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성과를 거둔 후에도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피해 산으로 떠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지도자처럼 반짝이는 미래를 이야기하며 오늘을 희생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늘 사람들에게 현세와 물질과 자신이라는 굴레와 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시면서도, 주님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 헌신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분노 섞인 요구에 따라 자기 목숨까지 희생양으로 내어 놓았

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도록, 이른바 실패를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교육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주의와 자기보호 본능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

셋째, 빛이 되는 삶

그러므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형제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의 뜻에 비추어 식별하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주고자 찾아 나서는 삶이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어질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향하는 희망의 길을 비춰주자.

1.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 비추어줄 빛은 무엇인가?
2.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3. 사람들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4.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5. 나와 사람들의 바람을 예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되는가?



새김 요한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걸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기도 시편 26(27),1-6

후렴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 누구를 두려워하라.

¹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

내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

내 누구를 무서워 하라.

² 내 살을 먹으리라 달려들던 악한 무리 *

나의 적 그 원수들이 비슬비슬 쓰러지니,

³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

내 마음은 겁내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싸움이 일어도 *

오히려 나는 든든히 믿으리라.

⁴ 오직 하나 주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당신의 성전을 우러러보며 *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어니,

⁵ 불행한 날 이 몸을 당신 장막에 숨기시고[†]

그 장막 그윽한 곳에 나를 숨겨 두시리라 *

바위 위에 덩그렇게 올려 두시리라.

⁶ 금시 내 머리가 *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쳐들려 있으니,

푸짐한 제사를 장막에서 올리리라 *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사제가 미사 중에 실제로 제병을 여러 조각으로 쪼갤 수 있고 쪼갠 조각들을 적어도 몇몇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성체하는 사람이 많거나 다른 사목적 이유가 있으면 작은 제병을 써도 좋다. 빵을 나누는 동작은 사도 시대에는 단순히 성찬례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이 동작은 일치와 사랑의 표지로서 성찬례의 힘과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준다. 곧 하나의 빵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일치를 드러내고,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 형제들의 사랑을 나타낸다.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그릇, 그 가운데서도 포도주와 빵을 담아 봉헌하고 축성하며 받아 모시는 데 쓰는 성작과 성반은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321, 327항).

8. 희망의 서곡

공간 주수대

표지라는 뜻에서 볼 때 성찬례 거행에 쓰는 재료는 실제로 음식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찬례에 쓰이는 빵은 비록 누룩이 안 들고 전통적인 모양으로 만들더라도 백성과 함께 미사를 봉헌

기억의 정화

어떤 분이 어릴 때 복사를 서면서 ‘포도주를 그냥 먹으면 맛있을 텐데 왜 물을 섞어 맛이 없게 하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렇기도 하다. 그런데 신 살이 되기 전에는 국을 좋아하지 않았다. 국을 먹어도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먹었지, 국물은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잘 먹지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 순댓국에 밥을 말고 잘 저은 다음에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은 밥도 아니요 국도 아니요,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던 국밥이라는 새 맛이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처럼 혼자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간을 초대하시는가? 인간을 초대하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초대에 협력하게 될 때까지의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면서까지 인간을 협력자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나 주수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하느님께 협력하는 마리아(루카 1,26-38)

1 ²⁶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³³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³⁵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³⁶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목 상

첫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왜 사람은 자식을 낳고 싶어 할까? 열 달이나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또 왜 자식을 낳고는 기뻐할까? 그 아이가 커가면서 속썩일 생각을 하면 끔찍할 텐데 말이다. 그리고 왜 자식을 그렇게 애써서 키우려고 할까? 시집이나 장가가서 떠나 버리고, 나이가 들면 떠나버릴 텐데 말이다.

부모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인간 마음과 인간 현상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면서도, 자식을 대견하게 여기고 자신의 흥망성쇠보다도 자식의 작은 성공에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를 만드신 하

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키우신다.

둘째,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에 협력하는 인간

하느님께서 생물과 광물 등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쓰으로써 세상에 또 다른 하나의 창조를 이어간다. 하느님의 나무로 책상과 종이, 집 등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 창조의 협력자들이다.

인간은 부부의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한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모범으로 세상에 사랑을 퍼뜨려 하느님 구원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셋째, 하느님의 사랑의 효과

우리는 봄이 되면 땅을 파고 씨를 심는다. 그리고 비료와 물을 준다. 그러면 새싹이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어떤 씨는 싹을 틔우나 어떤 씨는 그냥 썩어 버린다. 그것은 일정한 과학적 조건들에 맞아서 발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발아될 조건을 마련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 빛을 내려주시기 않으면, 우리가 씨에서 새싹을 강제로 뽑아 내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하느님 신비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

넷째, 새로운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홀로 못하실 것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신다. 사람이 처음 아기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육적 영적으로 성숙하여 새 사람이 되듯, 우리 인간 세상도 물질적 영적으로 성숙하여 새 나라가 되어야 한다. 어떤 쪽으로 성장하고 어느 쪽으로 성숙할 것인가? 자연환경과 문명, 문화의 방향과 깊이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듯이,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협력을 청하신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은총과 자유의지’에 관한 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응답하였다”는 말을 통해 곧 서로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는 그냥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물질이나 환경 또는 상황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지상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 새롭게 변화 되는 나라이다.

다섯째, 하느님과 인간이 만드는 새 세상

하느님께서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마리아의 협력을 구하셨

듯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협력을 구하고 계시다. 마리아의 협력을 통해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셔서, 우리가 새로 나게 되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나라를 만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주님께서 세우신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이러한 교회의 협력은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를 일치시켜 주었고, 주님의 힘으로 일치된 교회는 주님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한층 더 앞당기게 되었다.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가 하나 되는 일치의 상징으로 전례 안에서 포도주와 물을 섞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은 하늘과 땅, 신성과 인성,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와 협력을 드러낸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서 천상의 성인들과 지상의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공을 나누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다.

이러한 성인들의 통공은 명절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꿈같은 순간을 지내듯, 하늘 나라에서 주님과 성인들과 함께 누리는 친교를 희망하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희망의 나라,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희망하고 믿음으로써 오늘 주님께 사랑으로 순명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

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늘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도록 준비시켜 주는 사도들이 되자.

1. 주님과 내가 힘을 합하여 이를 새 세상에 대해 그려 보자.
2.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장점과 소질은 무엇인가?
3. 오늘 나는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협력하겠는가?
4. 주님의 새 세상을 반기지 못하는 내적 외적, 개인적 사회적 이유는 무엇인가?
5.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새김 1요한 4,7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기도 시편 22(23),1-6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 ¹ 주님은 나의 목자 *
아쉬울 것 없노라.
- ²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 ³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 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 ⁵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 ⁶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살으오리다.





9. 주님 사랑에 감화되어

공간 봉헌대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을 위한 빵과 포도주 그리고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른 예물을 바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드러나는 것이 좋다.

사제는 시종이나 다른 봉사자의 도움으로 신자들의 예물을 받는다. 성찬례 거행을 위하여 주례 사제에게 가져온 빵과 포도주는 제대 위에 놓는다. 다른 예물은 알맞은 다른 곳에 놓는다(미사 경본 총지침 140항).

기억의 정화

언젠가 할머니가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지고 오셨다. 그 땐 정말 초짜 신부여서 신자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할머니께 안 받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할망구가 가져오는 것이 적어서 그러냐?”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과부의 헌금도 즐겨 받으시는데, 결벽중에 가까웠던 내 소신이 오히려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우리에게 예물 봉헌이나 봉헌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사랑과 믿음(1요한 4,7-21)

4 ⁷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⁸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⁹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¹⁰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¹¹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¹²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¹³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¹⁴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¹⁵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¹⁶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

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¹⁷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¹⁸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¹⁹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²⁰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²¹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 상

첫째, 참회예절

피정을 시킬 때, 먼저 신자들에게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

세세히 되돌아보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주님을 모시기 위한 참회예절이 가끔 죄의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 사랑 안에서 자기 죄를 바라보면 위로와 희망 속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결점과 죄만 바라보면 자기 도피나 자기 비하, 자포자기 등의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평화와 기쁨

영성생활도 진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땐 스스로 힘들어 지고 기쁨 없는 노고가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 없는 노고는 오래가지 못하고 수덕의 차원의 신앙생활보다는 자칫 규율과 관습에 얽매어 냉엄한 신심의 윤리생활이 될 수도 있다. 영성생활의 원천과 방향은 노고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인한 평화와 기쁨이다.

셋째, 주님 사랑에 감화되어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해주셨는지를 확실히 느끼게 된다. 그러면 주님 사랑

에 감화 되어 기쁨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사랑에 감화 되어 변화될 때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자신을 봉헌하게 된다. 또한 이렇듯 주님께 감사하며 바치는 봉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의미로 형제들과 나누도록 나를 인도한다.

넷째, 봉헌의 기적과 하느님 나라

작은 본당에 있을 때였다. 한 주 헌금이 겨우 사십여 만원으로 근근히(?) 살아나갈 때였다. 하루는 신자 하나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일가친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헌금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2차 헌금은 평소 주일의 3배가 나왔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먹고 마실 정도는 주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도록 하신다. 주님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화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 하시고는 제자들이 주님께 봉헌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자리에 없는 이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신다(루카 9,10-17 참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

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1-34)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고자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1요한 4,16)

1. 주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2. 주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어떻게 봉헌하겠는가?
3. 주님께 보답하는 의미로 어떻게 형제들과 나누겠는가?



새김 루카 21,3-4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기도

무아(無我)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의 영가(靈歌) 중에서
새 생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님께 한 가지 원이 있어 언제나 이것을 바라옵나니
보다 더 큰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오르다가
영원한 사랑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저를 사랑하시어 항상 생각하시고
밝는 날에 갈마들 모든 것을 좋게 안배하시고,
성화하시고, 풍부히 강복하시어
부족한 것 없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오라.
사랑이 오면 또 가옵나니
사랑이 하느님을 부르면 그 소리 들어 주시고
사랑이 영광을 드리내면 주님은 영광받으시고
사랑이 병들었을 때에 빛과 힘을 주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바라보며
극기와 십자가로 성화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 성화에 요긴한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과 세복(世福)을 주시는 주님!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의와 노력을 다하게 하소서.
 신앙의 눈을 밝게 하사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의
 가치를 알고, 미소한 데에까지 정성을 다하여
 무(無)에서 오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보게 하소서.
 침묵으로 잡념과 사욕을 누르고,
 표현과 기거동작을 아름답게하며
 양심을 조명하여 모든 것에 굳은 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의(聖意)가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듯 침묵으로 어둠을 헤치고
 대월(對越)로 주님을 뵈옵나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강복하시어
 침묵대월의 간단없는 기도로
 면형무아(麵形無我)되게 하소서.
 아멘.



10. 성인의 발자취

공간 성화상

교회는 지상 전례에 참여하며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본다. 그리고 순례자로서 천상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

신다. 그리고 교회는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들과 결합되어 함께 살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매우 오래된 교회의 전통에 따라 거룩한 건물 안에는 신자들의 공경을 위하여 주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인들의 성화상을 모셔 놓는다. 성화상들은 그곳에서 거행되는 신앙의 신비로 신자들을 이끌어 주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화상이 분별없이 많지 않아야 하고, 성화상들을 참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여 전례 거행에서 신자들의 주의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으로 한 성인의 성화상은 하나 이상 모시지 않는다. 대개 성화상을 배치하여 성당을 장식할 때에는 공동체 모두의 신심과 함께 성화상의 아름다움과 기쁨도 고려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318항).

기억의 정화

중1 때 과천 영보 수녀원(현 과천 서울대공원)에 피정을 간적이 있었는데, 그곳 벽에 예수님 성화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눈이 너무나 무서워 어린 나이였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과거에는 성화가 다소 엄격하고 근엄하게 그려져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반면에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에겐 깊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위엄있는 왕 그리스도의 모습이건만, 심약한 나에겐 무섭게 꾸짖는 아버지처럼 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성화상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씀 구리뱀(민수 21,4-9)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1열왕 6,23-28)

21 ⁴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금 해졌다. ⁵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⁶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⁷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⁸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⁹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6 ²³솔로몬은 안쪽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높이가 열 암마되는 커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²⁴커룹의 한쪽 날개가 다섯 암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다섯 암마였다.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는 열 암마가 되었다. ²⁵다른 커룹도 열 암마로, 두

커룹이 치수도 같고 형태도 같았다. ²⁶한 커룹의 높이도 열 암마 이고, 다른 커룹도 마찬가지였다. ²⁷솔로몬은 이 커룹들을 집의 가장 깊은 곳에 두었다. 커룹들의 날개는 펼쳐진 채 한 커룹의 한쪽 날개가 이쪽 벽에 닿고, 다른 커룹의 한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집 가운데에서 서로 닿았다. ²⁸그는 이 커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목 상

첫째, 성인신심

인도 마드라스의 성당들을 다녀보면, 성당 안에 신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 기도한다. 그것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전에 걸쳐있는 성인들의 성상 앞에 모여서 기도한다. 가족끼리 연인들끼리 모여서 성상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지 신자들의 손이 많이 닿은 성인들의 몸은 아주 반짝거린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예 캄캄한 성당 저 안쪽 뒷벽에 모셔져 있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불을 켜면 모를까 평소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신자들이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수많은 성상들 사이에 둘러싸여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저러다가 성인신심이 미신스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안쓰럽기도 하다. 물론 성인들을 통해 서라도 주님께 자주 깊이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둘째, 성화공경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께서 강생하신 ‘말씀’으로 성취된 구원을 상징적으로 가리켜 주는 형상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거나 허용하셨다. 구리뱀과 계약의 궤와 커룹(cherubim)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2130항)라고 밝힌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성화상 공경은 우상을 금지하는 첫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2132항ㄱ)라고 규정한다. 교리서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성화를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성화에 그려진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화에 표하는 공경은 존경을 표하는 공경이지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흠숭은 아니다”(2132항ㄷㄹ). 이어서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신학대전을 인용한다. “성화를 공경하는 행위는, 성화 그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강생하신 하느님을 알아보게 해 줄 뿐이다. 곧, 성화에 표하는 동작은 성화 그 자체에 표하는 동작이 아니라, 나타내고 있는 분께 표하는 동작이다”(2132항ㅁ). 그리고 “성화

공경은 하느님의 말씀의 강생 신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2141항)라고 덧붙이고 있다.

셋째, 성인들의 통공

성경의 인자하시고 인격적인 하느님 개념이 철학적인 전지전능하신 형이상학적인 하느님 개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친근한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께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이 영적인 재산을 교회의 보화라고 부른다.”(1476항)라고 전제하면서, 바오로 6세의 교황령(Indulgentiarum doctrina)을 인용한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는 ‘신자들 – 이미 천상 고향에 이른 사람들, 연옥에서 속죄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지상에서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 –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의 유대와 모든 선의 풍부한 나눔이 있다’”(1475항). 그리고 “이 보화에는 무엇보다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기도와 선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살며 성부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얻었고 신비체의 일치 안에서 형제의 구원에 협력하였다”(1477항).

넷째, 전구기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는 전구는 아브라함 이래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 마음의 특징이다. 교회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전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인들의 통공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구에서, 기도하는 이는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며’”(필리 2,4),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한다.”(2635항)고 밝힌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하여 “교회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모든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다양한 영성이 발전되어 왔다. 마치 엘리야의 ‘정신’이 엘리사(2열왕 2,9 참조)와 세례자 요한에게 전해졌던 것처럼,(루카 1,17 참조)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개인의 특은이 전달되어, 몇몇 제자들이 그 정신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2684항ㄱ)고 전한다. 또 성 대 바실리오의 성령론을 인용하여 “성령은 참으로 성인들의 처소이다. 성인 또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바쳤기에 성령께서 거처하실 만한 처소이니, 그러므로 성인을 성령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2684항ㄴ)라고 말한다.

다섯째, 교회의 모범

성인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었다거나 완벽한 삶을 살았던 분들만은 아니다. 그분들 역시 인간의 불완전성과 나약성을 간직한 분이셨으나 그것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셨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각 시대의 어떤 비그리스도교적 상황에 대한 모범으로 성인들의 삶을 제시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르게 살아가지만 각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른다면, 우리도 어느 날, 아니 이미 이 세상에 교회를 심고 교회의 정신을 빛처럼 증거하는 것이리라. 내 뒷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단지 육적인 늙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부단히 정진해야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 되어(갈라 4,19 참조),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2코린 2,14-15 참조) 그때까지.

1. 내 후보성인은 어떤 분이신가?
2. 내가 살면서 가장 닮고 따르고 싶은 성인은 누구인가?
3. 성인의 어떤 모습이 내게 그리스도교 삶의 매력을 안겨 주는가?
4. 내가 성인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택하여 실현하겠는가?



새김 요한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
져야 한다.



기도 시편 111(112)

후렴 주께서는 은총과 자비를 성인들에게 주시고, 당신이 뽑으신 이들을 돌보셨도다.

- ¹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여 *
당신의 계명을 큰 낙으로 삼는 이여,
- ² 그 후손은 세상에서 강성하리라 *
의인의 자손은 축복을 받으리라.
- ³ 재산과 부요함이 그의 집에 있고 *
그 의로움이 항상 남아 있으리라.
- ⁴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그는 *
어둠 속의 빛처럼 바른 사람을 비추도다.
- ⁵ 복되다 인정 있고 꾸어 주는 사람 *
올바로 자기 일을 처리하도다.
- ⁶ 흔들림이 항상 그에게 없고 *
언제나 의인으로 기억에 남기리라.
- ⁷ 언짢은 소식에도 그는 아니 놀라니 *
주께 바라는 그 마음 든든하여라.
- ⁸ 그 마음 굳세어서 겁을 모르리니 *
마침내 그 원수들의 망신을 보리라.
- ⁹ 그는 없는 이에게 기꺼이 나눠 주어도[†]
의로움은 그대로 항상 남아 있으리니 *
영광 속에 그 이마가 높이 쳐들리리라.
- ¹⁰ 악한 자 이를 보고 울화를 터뜨리며[†]
이를 갈면서 죽어 가리니 *
악한 자의 탐욕은 쓰러지고 말리라.





II. 새로운 노래를

공간 성가대

성가대 자리는 성당 구조를 고려하여 성가대도 모임을 이룬 신자 공동체의 한 부분이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또 성가대원들이 맡은 임무를 쉽게

수행하고 성가대원 각자가 편리하게 성체를 받아 모시어 미사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오르간과 합당하게 승인된 다른 악기는 적당한 자리에 놓아 성가대와 백성이 노래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악기만 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르간은 전례에 쓰기 전에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

대림 시기에는 그 시기의 특성에 맞게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사용을 절제하여, 예수 성탄 축제의 충만한 기쁨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게 한다.

사순 시기에는 오르간과 다른 악기는 오직 노래 반주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여라 주일(사순 제4주일), 대축일, 축일에는 예외다(미사 경본 총지침).

기억의 정화

중학생 때였던가, 2층 성가대에서 솔로로 부르는 성가 ‘평화의 주’를 아래 신자석에 앉아서 큰 소리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난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던 그 순간은 무엇이였을까?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으로의 초대였는지, 그 성가를 부를 때마다 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이 마치 나를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올라가게 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고 느꼈던지, 주님께 향한 순박하고 올곧은 어린 시절의 설렘이었다.

우리에게 성가나 성가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묵시 15,1-8)

15 ¹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²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듣고 ³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⁴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⁵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⁶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⁷그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⁸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 상

첫째, 기도의 준비인 성가

성가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간절해지고, 진지해진다. 그리고 내 감정 속에 기도의 분위기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성가를 부르면 내 마음이 주님께 들어 높여지고, 주님 대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낭독이나 낭송만으로는 어느 누구의 목소리가 걸리기도 하는데, 성가는 은은하고 거부감이 없어 좋다. 그리고 성가를 부르면 성가곡과 성가의 가사가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 준다.

둘째, 두 배의 기도인 성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전례 헌장」 112항을 인용하여 전례에서 차지하는 성가의 비중에 대해 말한다.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1156항-). 또한 “흔히 악기로 반주되는 영감을 받은 시편의 가사와 노래는 구약의 전례 거행과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지속 발전시켜 왔다. ‘성시와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에페 5,19)”(1156항-).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노의 시편 상해를 인용하여 말한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1156항-).

셋째, 노래와 음악의 세 기준

교리서는 노래와 음악은 세 가지의 주요 기준에 따라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전례 헌장 112) 깊은 의미를 지닌 표징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 기준들은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 예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회중 전원의 일치된 참여, 전례 거행의 장엄함 등이다. 이처럼 노래와 음악은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고 하는 전례적 언어와 행위의 궁극 목적에 이바지한다”(1157항-).

넷째, 대중 성가의 중요성

교리서는 「전례 헌장」 119항을 인용하여 “이 표징(성가, 음악, 언어, 행위)들의 조화는 전례를 거행하는 하느님 백성 고유의 풍부한 문화로 표현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것이 된다.”고 밝힌다(1158항-). 그래서 「전례 헌장」 118항에 나오듯이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대중 성가를 장려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규범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 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1158항-). 그리고 전례헌장 121항을 따라 단서조항을 하나 둔다.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서와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1158항-).

다섯째, 평화와 위안의 복음

성가를 부르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속이 확 트이게 하며 주님께 한 층 더 고양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전례 속에서 성가를 부르며 고양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 그분 품 안에 꼭 잠기자. 그리고 주님께에서 받은 주님의 복음을 깊이 새기고 그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온 평화와 위안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도록 하자.

천상 교회 천사들의 합창과도 같은 성가대의 성가를 들으

며 깊은 묵상에 잠겨,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고 음악을 통해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음악을 통해 세파에 찌든 우리 몸과 마음의 긴장과 갈등을 이완시켜주며 편안케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배려에도 감사드린다.

1. 성가를 부르며 주님께 향해 내 마음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끼는가?
2. 주님께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가? 나를 주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는 성가는 무엇인가?
3. 성가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대견해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가?
4. 성가를 부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화와 위안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은 감흥이 솟아오르는가?
5. 내가 받은 평화와 위안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겠는가?



새김 시편 149,1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기도 시편 97(98)

후렴 주께서 구원하심을 드러내 보이셨도다. 알렐루야.

- ¹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 드려라 *
묘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손이 거룩하신 그 팔이 *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 ² 주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 ³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시는 *
그 사랑과 진실을 아니 잊으셨으니,
땅 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
모두가 우리러보았도다.
- ⁴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 *
즐기어라 기뻐하라 고에 맞춰 노래하라.
- ⁵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노래하라 *
수금에 가락 맞춰 노래불러라.
- ⁶ 나팔에다 각적 소리 한데 아울리면서 *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한껏 즐겨라.
- ⁷ 바다여 소리쳐라 그 안의 모든 것도[†]
누리여 소리쳐라 거기 사는 모든 것도 *
- ⁸ 강물들 손뼉치고 산도 함께 춤추어라.
- ⁹ 주께서 오시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12. 전례에 봉사하며

공간 해설대

해설자는 필요에 따라 짧게 해설과 권고를 하여 신자들이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며, 거행의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도와준다. 해설자의 설명은 미리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고 간

단명료해야 한다. 해설자는 신자들에게 잘 보이는 알맞은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독서대에서는 하지 않는다(미사 경본 총지침 105ㄴ).

기억의 정화

처음 미사해설을 할 때, 첫 번째 성가가 마쳐 갈 무렵 신부님이 해설대로 찾아오셔서 나를 불렀다. 그런데 나는 다음 성가 번호를 공지하기 위해 신부님을 기다리게 했다. 무척 어색해 하시던 신부님의 얼굴을 뵈었고, 미사 후 신부님의 호출이 먼저인지 성가번호 공지가 먼저인지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다. 또 하루는 가톨릭 기도서도 펴지 못한 채 급하게 미사해설을 시작했다가 대영광송의 계·응을 두 개나 빼먹고 건너뛰었던 적도 있었다. 실수투성이였던 나를 묵묵히 바라만 보아주시고 용서해주셨던 신부님들께 이제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에게 미사해설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씀 즈카르야의 노래(루카 1,67-79)

- 1 ⁶⁷아기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 하였다.
- ⁶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 ⁶⁹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 키셨습니다.
- ⁷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 ⁷¹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 ⁷²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 ⁷³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 ⁷⁴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 ⁷⁵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 ⁷⁶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 ⁷⁷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 ⁷⁸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 ⁷⁹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목 상

첫째, 미사해설자의 역할

한 때는 성당에 처음 온 분들이나 예비신자, 또는 초심자를 위해 안내를 자세히 한다는 의미로 ‘앉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란 단순한 공지 외에도 오늘 복음은 ‘~ 복음 ~장 ~절입니다’ 등 미사해설 부분을 확장한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침묵 중에 묵상을 깊이 하고 경건하게 미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사의 진정한 해설자는 사제뿐이라며 미사해설 부분을 축소시켜 평일미사에는 거의 해설자의 역할이 성가나 영성체송의 선창 정도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다.

일반인의 눈으로 미사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주인공은 사제 홀로이고 나머지는 조연자들이다. 독서자를 제외하고는 성찬봉사자나 복사 등은 소리 없는 조연이고, 성가대는 단체로 등장하며, 준비자들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들 외에 드러나는 이는 해설자뿐이다. 미사해설자는, 사제가 입당하기 전부터 사제가 미사를 마치고 퇴장 한 후 신자들이 퇴장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미사를 안내한다.

둘째, 미사의 성격

미사를 제사라는 성격에서 바라본다면, 조연자들과 일반 회

중의 소극적인 참여와 침묵을 바탕으로 하여 주인공인 주례자를 중심으로 제대 상의 성체성사 거행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잔치라는 성격으로 바라본다면, 주례사제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에 하면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 참례자들이 보기에 좋을 듯싶다. 그리고 미사의 참례자들이 조연으로라도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면, 성체성사의 잔치적인 성격을 더 풍요하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사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미사해설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자 대중의 많은 이들이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신자들이 돌아가면서 미사해설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미사해설자의 공지 내용을 사전에 주례자와 상의해서 결정할 수만 있다면, 늘 같은 때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여유있고 다양한 안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것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참례하고 싶은 미사

가끔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 이번 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지 궁금해 빨리 다음 회를 보고 싶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매력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인지 모른다. 그런데 미사에도 그런 면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 매주일 미사에 참례하러 오긴 오지만 오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참례하고 싶어서 오는 미사였으면 더 좋겠다. 물론 미사는 인간의 생과사를 넘나들며 기획될 수 없고 그려질 수 없는 인간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다루고 있고,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재연하는 것이기에 드라마와 쇼와는 견줄 수 없다. 미사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림과 현존에서 오는 은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렇지만 교회가 인간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 미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이후 중세 교회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 오늘의 사람들을 수용하기는 데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미사는 많이 바뀌었다. 미사의 요소들의 배치나 순서가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제와 신자들이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대를 벽면에 붙여 놓고 벽을 향해 서서 성체성사를 바쳤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에는 사제가 성체성사를 봉헌하기 위해 신자들을 향해 열린 모습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를 중심으로 신자들이 부채꼴이나 동그랗게 둘러서서 드리는 잔치의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2층의 성가대가 아래

층 제대의 뒷면이나 제단의 측면 가까운 곳에서 성가를 부르게 되어, 신자들이 성가대를 눈으로 보면서 성가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성사로서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간직하고 이를 나눈다는 유비적인 의미에서(가톨릭 교회 교리서 774항), 전례를 통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1075항)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미사가 좀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신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다. 이는 평신도 미사해설자보다 미사 전례의 참 해설자인 사제에게 더 해당되는 것이며, 사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 백성으로 다 같이 고민하고 기획해 나갔으면 하는 꿈을 꾸어본다.

1. 나에게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에 참례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2.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미사해설이 어떤 도움이나 부담을 줍니까?
4. 미사해설에 어떤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미사해설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김 루카 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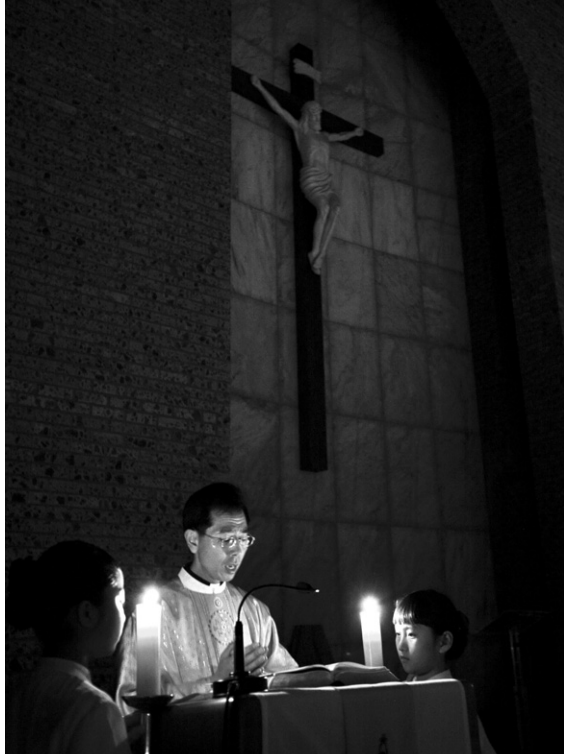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기도 시편 18(19),2-7

후렴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퍼져 나가고,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번져 가도다.

- ²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애기하고 *
창공은 그 손수 하신 일을 알려 주도다.
- ³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 ⁴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 ⁵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 나가고 *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 가도다.
- ⁶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해 주시니[†]
태양은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인 양 *
한길을 치닫는 거인인 양 뛰놀도다.
- ⁷ 저 하늘 끝에서 솟아나와[†]
하늘 끝으로 돌아가니 *
그 열을 아니 받는 아무것도 없도다.



13.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공간 독서대

하느님 말씀은 그 존엄성에 비추어 성당 안에 있는 알맞은 곳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소는 말씀 전례 동안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보통 고정된 독서대여야 하며 움직이는 단순한 책틀이어서는 안 된다. 독서대는 성당의 구조에 따라 설치하되 신자들이 성품을 받은 봉사자들과 독서자들을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독서대에서는 오로지 독서들, 화답 시편, 파스카 찬송을 한다. 그러나 강론과 보편 지향 기도도 할 수 있다. 독서대의 품위에 비추어 말씀의 봉사자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

새 독서대는 전례에 쓰기 전에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309항).

기억의 정화

성당에 갈 때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지’ 잊어버릴 새라 가슴 속에 꼭꼭 감싸고 가지만,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올 때나 기도하고 나올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잊어버린다. 어쩌면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다쳐봐서 그런지, 괜히 나만 손해보고, 어딘지 밀리는 듯하고, 경쟁사회에서 나만 뒤쳐진다고 느껴서 그런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반감이 없으면서도, 늘 자기가 앞선다.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내가 죄짓지 않고 충실하면 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리라.’ 하는 막연하고 선한 종교심만을 근



거로 살아나갈 때가 많다.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세상의 좋은 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 그 모든 좋은 것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서 십자가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데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반성이나 숙고도 없이, 기본

적인 은총에만 의지하고 소시민적 삶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는가보다.

우리에게 독서나 독서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1-11ㄱ,19)

3 ¹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²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³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⁴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⁵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⁶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⁷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⁸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⁹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¹⁰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¹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¹⁹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목 상

첫째, 주님의 예언자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단어에 기대하는 바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역할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다. 성경의 예언자는 그 시대 그 상황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왕과 하느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대칭구도로 나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부르셨고, 예언자가 되고자 하는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소명에 답하게 된다. 사무엘의 예언자 스승인 엘리 역시 사무엘에게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

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라고 교육시킴으로써 예언자의 본질이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저 예언자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려준다.

둘째, 독서-성경독서

전통적으로 전례에서는 독서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전례 독서는 곧 성경이다. 성경을 전례 중에 읽는다는 것은 전례 회중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회중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깨달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전례 회중이 전례에서 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당신 백성에게 다가 오시고,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 그 말씀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Torah)이다.

셋째, 예수님의 독서

예수님께서도 유다 회당에서 일종의 성인식을 할 때,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건네받고 읽으셨다(루카 4,17). 그분이 찾아 읽으신 부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이사 61,1-2).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

허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레위 25,8-13)”(18-19절)이다. 예수님은 이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 사명, 곧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신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수행하실 것이며 마침내 완성하실 것임을 알린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읽으신 성경에 대해 이렇게 덧붙이신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21절).

넷째, 생명의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6).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를 알려주기에 진리의 길이며,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게 되기에 생명의 길

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에 진정한 힘을 가져다주는 맛있는 양식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양식을 받아먹어 살게 되고, 이렇게 받아 모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준다.

다섯째, 생명의 양식

주일 복음 말씀이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살아 속삭인다. 생활의 매 순간에 그 말씀을 따르도록 나를 상기시켜 준다. 그러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기쁨을 얻기도 하고, 걸려넘어져 휘청거리다가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말씀으로 안겨주시고, 진정 내 생애의 일용한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를 키우신다. 그렇게 한 말씀씩,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서고 다달아 주님의 사도가 되리라.

1. 내 삶의 좌우명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2. 요즈음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내 삶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즘의 상황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3.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새김 루카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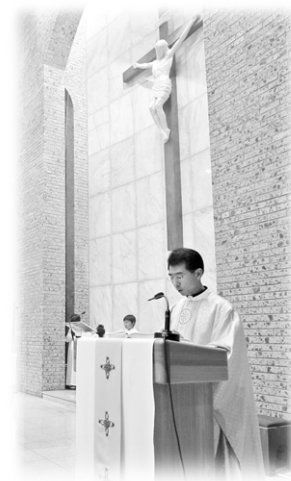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기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님(복자 앙뜨완 슈브리예)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이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뵈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뵈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 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르게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14. 주님의 제단에서

공간 제단과 제대

제단은 제대가 있고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사제, 부제, 다른 봉사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조금 높게 만들거나 특별한 구조나 장식을 하여 성당의 다른 부분과는 뚜렷이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성찬례 거행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고 신자들이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한다.

제대는 십자가 제사가 성사적 표지로 현실화하는 곳이며, 미사에 소집된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이다. 또한 제대는 성찬례로 이루어지는 감사 행위의 중심이기도 하다(미사 경본 총지침 295-296항).

기억의 정화

첫영성체 교육을 받던 어린 시절에는 성체가 입천장에 붙지 않도록 미리 혀로 입천장에 침을 발라 놓으라는 요령을 배웠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라고 하셨으니, 성체를 삼키지 않고 음식처럼 씹어 먹어도 된다고 배웠다. 그러자 우리가 사는 시공의 3차원적 존재양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씹으면 예수님께서 아프다고 하지 않으실까?’ 또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씹으면 피가 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몸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하시던 그 모습과는 달리 육과 영이 하나가 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존재 양식이다.

우리에게 미사나 제단과 제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씀

구유(루카 2,6-7; 마태 2,11-12,16)와 성체성사(루카 22,19-20) 및 부활하신 주님의 영(루카 24,30-31; 요한 20,21-23)

2⁶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⁷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2¹¹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¹²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 ¹⁶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22¹⁸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⁰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24³⁰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³¹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20²¹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목 상

첫째, 구유인 제단과 제대

매년 성탄이 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곳이 천주 교회든 개신교회이든, 신자이든 성탄 특수이든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다. 성탄의 신비를 찾아 교회를 찾는다. 그런데 그 신비는 정작 죽음이다. 구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머문 곳이며, 죽음의 풍전등화 속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헤로데가 예수 아기를 죽이기 위해 근방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유는 무고한 어린이들의 제단이기도 하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 역시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몰약은 죽은 이의 사체

에 바르는 향유이다. 유향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치는 향이지만, 죽음의 대전에 바치는 향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년 성당에 와서 제단에 차려진 구유 앞에 경배한다. 그리고 그 경배는 새로 태어나신 예수 아기에 대한 경배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이 구유를 기반으로 주님은 사명을 시작하신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ㄱ).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까지, 그분은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혀 죄악으로 물든 인류 세계를 정화하고 다시 하느님 은총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단의 제물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 예수의 구유 앞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을 경배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14ㄴ).

둘째, 성체성사인 제단과 제대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준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루카 22,14). 그러시면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받기 위한 희생제물이란 것을 명백히 말씀하신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8).

우리는 이 최후 만찬에서 거행된 성체성사의 피의 제물이 십자가상 제사의 제물이기에, 오늘 우리도 이 제단에서 주님께 인류 구원의 제물을 바친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감사기도 제3양식 기념과 봉헌). 또한 “……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이며 세상에 구원을 주는 제사이옵니다.”(감사기도 제4양식 기념과 봉헌 중에서). 아울러 주님께서 요한 복음 17장 대사제의 기도에서 아버지께 청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하고자 한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갖은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

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제3양식 성령 청원 : 일치 기원).

셋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제단과 제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그때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엠마오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설해 주시고, 생전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대로 성체성사를 재현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리고 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인사하시며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주님의 증거자로 변화시켜 주시며,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

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45-48).

주님의 제단에서 성체성사를 영한 제자들은 성령에 힘입어 세상 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사도 2,36-38). 선교의 제단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구원을 위한 또 하나의 성체로 살아갈 것을 기도한다. “주님, 몸소 교회에 마련하여 주신 이 제물을 굽어보시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받으려는 저희가 모두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감사기도 제4양식 성령 청원 : 일치 기원).

넷째, 천상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며 이 지상에서 바치는 우리 제물이 천상교회의 제물과 합치되기를 기도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감사기도 제1양식 성령 청원 : 일치 기원). 이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지상에서 마주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로 대표 되는 갖가지 사건과 상황들의 현실을 주님께 봉헌하며, 아울러 천상 교회에 계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한다.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미사 감사기도 제2양식 전구 중에서).

다섯째, 세상에 던져진 또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주님은 말씀하신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우리는 일상에서도 성체성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제가 주님의 말씀과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성체성사를 봉헌하듯이, 우리 업무와 땀과 노력을 제물 삼고 우리 작업대를 제대 삼아

성체성사적 삶을 봉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 삶의 제대들 위에서 봉헌하는 우리의 활동이 성체성사적 활동이 되고, 세상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궁전인 우리가 세상 곳곳을 제대로 삼아 성체성사적 삶을 봉헌하는 밀알이 되어 하늘나라의 열매를 얻으리라.

1. 오늘 내가 새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인가?
2. 오늘 내가 성체성사를 봉헌하며 바치는 제물은 무엇인가?
3. 오늘 내가 성령의 힘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바치는 제물은 무엇인가?



새김 요한 13,3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기도 시편 83(84),2-13

후렴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사와도
내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² 만군의 주님이여 *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하오시고,
³ 그 안이 그리워†
 내 영혼 애태우다 지치나이다 *
 이 마음 이 살이 생명이신 하느님 앞에 뛰노나이다.
⁴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사와도†
 내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
 만군의 주시여 내 임금 내 하느님이여,
⁵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오니 *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⁶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복되오니,
⁷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샘물이 솟게 하리이다 *
 상서로운 첫 비에 젖게 하리이다.
⁸ 그들은 더욱더욱 힘차게 나아가 *
 신들의 하느님을 시온에서 뵈오리다.
⁹ 만군의 주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
 야곱의 하느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¹⁰ 보소서 우리 방패 하느님이여 *
 당신께 축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¹¹ 실로 당신의 쉼나라면 *
 천 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들의 장막 안에 살기보다는 *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에 있기 소원이니이다.
¹² 주 하느님이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
 은총과 영광을 주께서 내리시고,
 티없이 걷는 이에게는 *
 좋은 것 아니 아끼시나이다.
¹³ 만군의 주님이여 *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 복되도소이다.





15. 주님의 길

공간 십자가

제대 위나 둘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놓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와 촛대는 입당 행렬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다.

행렬 때 들고 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는 제대 십자가로서 제대 옆에 세워 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품위 있는 곳에 놓아둔다. 제대 십자가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십자가는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 수난의 구원 업적을 기억시켜 준다. 십자가는 전례를 거행하지 않을 때에도 제대 가까이 둔다(미사 경본 총지침 117,122,308항).

기억의 정화

신학과 4학년 착의식을 위한 예절연습을 할 때였다. 담당 신부님께서 우리 대상자들에게 수단을 입고 제단에 모이도록 하셨다. 신부님은 예절연습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독서직을 시작으로 성직의 길을 걸어갈 우리들을 제단에 꿇어 앉혀 놓고 한 시간 이상 훈화를 하셨다. 차가운 제단 위에 꿇어 앉아 신부님의 훈화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고 바라본 십자가는 무척이나 육중하고 거대해 보였다. 그날 밤 내가 본 십자가는 평소 신자석에 앉아서 바라보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 내 몸으로는 짊어지기는 커녕, 은총의 힘으로만 간신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제직의 시작이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루카 22,39-46; 23,32-49)

22 ³⁹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⁴⁰“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⁴¹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땅을 만만 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⁴²“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⁴⁵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⁴⁶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23 ³²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³³‘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³⁴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³⁵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하며 빈정거렸다. ³⁶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

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³⁷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³⁸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³⁹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⁴⁰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⁴¹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⁴²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⁴³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⁴⁴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⁴⁵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⁴⁶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읽는 것을 멈추고 잠시 침묵 중에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⁴⁷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하고 말하였다. ⁴⁸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⁴⁹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목 상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영상시대와 그리스도교 덕목

과거 문자시대에는 사람들이 철학적 가치의 전달이나 의미 부여, 윤리 의식 등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활동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영상시대로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아름다워 보이거나, 귀에 좋게 들리거나, 손에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 좋은 것(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악)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문자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보람 있는 삶을 존중하고, 성덕이 높은 사람을 선망하고 또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땀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무던히 참고 남몰래 손해 보고 희생하면서 쌓아야 한다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듯하다. 그보다는 백화점에서 보기 좋고 유용한 상품을 골라서 돈을 주고 사듯이, 영적인 가치들을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얻고 싶어 한다. 그저 돈으로 좋은 작가의 글과 작품과 디스크를 사고, 직접 읽고 듣고 보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체로도 자신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덕신비의 항목으로 삼아왔던 희생, 양보, 고행 등의 가치들이 무한 경쟁과 물질 및 자본 위주의 사회 안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어딘

지 모르게 그와 관련된 그리스도교 수덕 항목들도 뒤쳐지는 듯하다. 쌓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세태를 본다.

둘째, 십자가, 짊어져야 하는 구원의 길

죄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십자가는 짊어져야 한다. 왜 그런가?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라고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 길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이라고 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셋째, 영광스런 부활의 전제인 십자가의 고통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십자가의 길은 부활에로의 길이다. 그렇다면 부활로 대표되는 영광은 십자가로 대표되는 고통을 전제로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가학적이거나

피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로 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 각고의 인내처럼 자신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이며, 악과의 투쟁이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십자가인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을 주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피하거나 넘어야만 하는 극기 훈련과 경쟁 사회의 장애물일 뿐이다.

넷째, 자기를 버려야 산다.

자기를 버려야 산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제일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와 다른 아니 자기와 함께 살라고 보내 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는 그냥 홀로만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외톨박이 왕따거나 불통 또는 외고집이거나 독재가 아니겠는가. 자기 혼자만의 몸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라면 해당 형제자매들의 원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을 위한답시고 취하는 행동은 모두 정작 형제자매들 본인에게는 거북스럽고 부당한 것이며 설사 좋은 조치라고 해도 당사자의 섭섭함으로 당사자의 동기유발은 이미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앞길도 형제자매들과 함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과의 공동의 길이라면

자신을 버리고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의지, 정보와 행동방식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형제자매들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여럿이 모였다고 다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셋이 걸어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던 공자의 말을 참고해볼만 하다.

다섯째, 십자가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이다’라는 저주성 농담이 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미워 죽겠다는 식의 원수에게 하는 농담이 아닌 친구와의 의견과 행동 차이를 겪을 때 내뱉는 농담이다.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형제자매들과의 다른 점이란 표현의 십자가리라.

그런가하면 자신의 생애에서 성격이라든지, 기질, 병고 등 자신이 짊어지고 극복해야 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십자가가 분명 있다. 장점이거나 특성이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고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라는 표징이 보여주듯이 형제자매들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가 있다. 내가 살기 위해 너희를 희생시키려는 도식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이다.

1. 오늘 내가 짊어지기 버거운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2. 오늘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짊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3. 오늘 내가 이 사회와 이 세대를 위해 짊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4. 오늘 내가 겪는 고통을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희생에 봉헌하고 있습니까?
5. 오늘 내가 겪는 고통이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값진 자원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새김 요한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기도 시편 145(146),1-10

후렴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느님 기리리라.

¹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² 한평생 주님을 찬미하라 *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느님 기리리라.

³ 대관들을 믿으려 하지들 말라 *

인간은 구원을 갖지 못한 것,

⁴ 숨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

그때에는 모든 생각 없어지고 마는 것.

⁵ 야곱의 하느님이 그의 구원이신 자 *

그의 희망 주 하느님이신 자는 복되어라.

⁶ 그 주님 만드셨도다 하늘과 땅을 *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⁷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⁸ 주님은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고 *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은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

주님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⁹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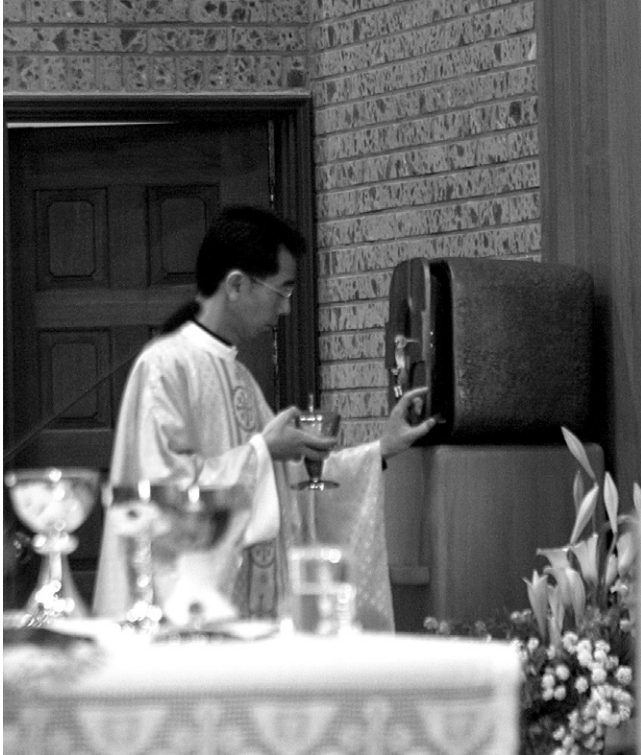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

악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¹⁰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16. 숨어 계신 예수님

공간 감실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각 성당의 구조와 적법한 지역 풍습을 고려하여 성당의 한 부분에 감실을 만들어 모셔 둔다. 감실은 참으로 고상하고, 잘 드러나고, 잘 보이며, 아름답게 꾸민 곳에, 또한

기도하기에 알맞은 곳에 마련하여야 한다.

감실은 보통 하나이고 불박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불투명 재질로 만든다. 그리고 거룩함이 모독될 위험이 결코 없도록 닫아 두어야 한다. 그 밖에도 전례에 쓰기 전에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314항).

기억의 정화

어릴 땐 묵주기도가 익숙했다. 지금도 자기 전에 ‘성령님, 마저 바쳐주십시오.’ 하면서 묵주를 손에 들고 잠들 정도로 습관에 젖어 있다. 그만큼 성모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습관이 될 정도로 친숙했지만, 예수님과 성체조배 등은 내게 쉽게 전수되지 않았을 정도로 멀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좋은데 말이다.

우리에게 성체조배나 감실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참행복(마태 5,3-12)

- 5³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목 상

첫째,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감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처음 미사에 참례치 못하는 병자들을 위해 성체를 모셨던 장소였다. 그후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성체를 모신 장소이기에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성체조배라는 신심기도가 생겨났다. 현대에 와서는 고리처럼 24시간 지속적인 성체조배도 하게 되었다.

둘째, 성체조배

‘고해소의 성인’, ‘성체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한 분당 신자가 매일 성체 앞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그 할아버지에게 “매일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신자가 “‘뭐, 특별한 것 없이,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그냥 문안드립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 몽땅 받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있다 갑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라는 이 대답들이 성체조배의 이유와 의미를 가리키는 실천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말을 한다 해도 누구

하나 나의 갈망과 갈등을 채워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즐겁고 기쁠 때 또는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 나와 함께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주님께 새삼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냥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편한 기도의 기초다.

셋째, 주님의 현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홀로 아버지 하느님과 시간을 가지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후에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하여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룰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 현대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바쁘게 살아나가지만, 예수님처럼 하루 일과 시작 전에 또는 일과를 마친 후에, 자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는 밤에 자면서 미리 내일 묵상할 구절을 읽고 자면서, 일어나면서, 출근하면서, 일과 중에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토막시간을 내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 말씀과 업적에 대한 깨달음이 불현 듯 떠오르기도 한다.

문제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 현

존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며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평화이다.

넷째, 묵상기도

묵상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묵상은,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상황을 내가 왜 겪도록 하시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잠겨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묵상거리를 잡는 방법에는 위의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한 '주제별 묵상'과 '성경묵상'이 있다. 그리고 물론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주님 안에서 되새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과 상황이라는 묵상거리를 묵상하면서 결국 주제별이나 성경구절에서 도움을 얻고 결과를 찾게 된다. 주제별 묵상은 교회의 전통적인 주제들, 즉 사랑과 믿음과 희망, 순명, 겸손, 정결, 기쁨 등을 위의 관점과 연결하여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묵상은 성경구절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방법이다.

묵상은 주님 대전 앞에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고, 잘못해서 괴롭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속죄하고 무조건 참

고, 속죄하며 마치 현실에서 기죽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막연하게 앞으로 잘 살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주님과 하느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 사건과 상황이 옳으나, 옳지 않느냐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사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께 의탁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관상기도

묵상기도가 내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주님께 다르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관상기도는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을 (실제처럼) 뵈옵고 느끼며,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에 잠겨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관상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같아지고 닮아가며 하나 되어 친교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처음에는 묵상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펼쳐주신 계시나 신비 또는 구체적으로 성경구절의 배경과 등장인물 대화 등을 마치 상상이나 연상처럼 의도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안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참여하여 주님과의 보다 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 말로는 조금 표현하기 모호하지만, 주님을 만나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구체적인 성경구절을 가지고 묵상과 관상으로 들어가면 의외로 쉽게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여섯째, 관상기도에 들어가기

관상기도를 할 때는, 어느 한 성경구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에 만족할 수도 있다. 또는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나 행위에 머물러도 좋다. 성경구절에 나타난 상황과 등장인물과의 대화와 행위를 자신의 삶과 대비시켜 그 내용을 살피고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과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성경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배경, 장면)을 새겨본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의 등장인물을, 세 번째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주님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말을 주고받고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지 깊이 새겨보고, 네 번째는 자신을 또 하나의 등장인물로 집어넣고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활동하는 것을 처음에는 상상으로 그리다가 점차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면이나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활동을

그러보다가 그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자신이 주님께 말씀을 건네는 것까지는 상상으로 투사하듯 기도한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대응하시고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구절이 관상하기 힘들거나 내 삶의 상태가 너무 급박하고 번잡하여 관상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성경본문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으면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교회의 신비, 성체의 신비

성체조배는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지금까지 일상에서 살아왔던 삶을 봉헌하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주님께 용서와 위로를 얻어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기도 중에 받은 주님의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성체조배는 그리스도교 신비의 정수를 드러내는 듯하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는 교회 안에 현존하시면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 것처럼,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 안에 숨어계신 주님께서 성체조배를 하는 신자들에게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시며, 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성체조배에 맞들인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성체조배를 하며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거나 나를 따뜻하게 해주신다거나 하는 등의 현존감을 느끼는가?
2. 성체조배를 통해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아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가?
3. 성체조배를 통해 내 삶에서 선을 행하고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가?
4. 성체조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가?
5. 성체조배를 통해 주님에게서 어떤 힘을 얻는가?



새김 요한 14,23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기도 시편 26(27),1-6

후렴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 누구를 두려워하라.

¹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

내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

내 누구를 무서워 하라.

² 내 살을 먹으리라 달려들던 악한 무리 *

나의 적 그 원수들이 비슬비슬 쓰러지니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

내 마음은 겁내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싸움이 일어도*

오히려 나는 든든히 믿으리라.

⁴ 오직 하나 주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당신의 성전을 우러러보며 *

주님이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어니,

⁵ 불행한 날 이 몸을 당신 장막에 숨기시고†

그 장막 그윽한 곳에 나를 숨겨 두시리라. *

바위 위에 덩그렇게 올려 두시리라.

⁶ 금시 내 머리가 *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쳐들려 있으니,

푸짐한 제사를 장막에서 올리리라 *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17. 다시 세상을 향하여

공간 파견문

기억의 정화

외국에서 사목하고 공부하면서 지칠 때면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마다 평소와는 다른 이파리의 색이나 다른 것과는 달리 특별히 반짝이는 나무 잎사귀 하나, 나뭇가지 사이로 신기하게 비쳐지는 햇살, 속삭이듯 다가와 지저귀는 새소리, 물속에서 살포시 얼굴을 내밀어 마치 인사라도 하듯이 입 벌리는 물개들, 내 전후 좌우에서 뒤통거리며 움직이는 조그만 자연의 친구들……。 이 모든 움직임들이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려고, 자연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표징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미사를 마치고 성당문을 나오면서 마주치는 햇살은 정말 아름답다. 주님의 사랑을 담백 받고 나서며,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한 사제의 말을 실현하며 살라고, 나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에게 미사를 마치고 나오거나 성당문을 나서면서 가졌던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로 하자.



말 씬 주님의 기도(마태 6,7-15)

6⁷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⁸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⁹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¹⁰**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¹¹**오늘 저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¹²**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¹³**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¹⁴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¹⁵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 상

첫째, 하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

미사를 마치고 우리는 길로 나선다. 그 길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할 선교의 장이다. 복음화의 내용은 곧 하늘 나라이다. 전례를 마치고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을 나서는 우리가 바치고 기억하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이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 나라를 이 땅에도 이루고자 하였던 주님의 사명을 되새긴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이어 이 땅을 하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악에게서 구해주시기를 청하며 나아간다.

둘째, 하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인 복음화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따라 이교인들에게 세

례를 베풀고, 우리가 가르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베푸는 것을 복음화라고 규정하려 하였을 수 있습니다.”(17항-)라면서 “복음화의 풍부하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참모습을 부분적으로나 단편적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은 복음화의 의미를 빈약하게 하고 나아가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17-)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면서 “복음화의 모든 본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복음화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17-)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복음화의 목적과 정의를 내려준다. 복음화의 목적은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8항-)라며 내적 변화(로마 1,16; 1코린 1,18; 2,4 참조)를 강조한다. 그리고 복음화의 정의를 “교회가 복음화한다는 말은,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18-)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이 설명이 교회 복음화의 ‘가장 알맞은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차원이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

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19항).

셋째, 문화의 복음화, 복음의 문화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선포대상인 인간의 문화와 마주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문화의 복음화와 복음의 문화화(토착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복음과 그에 따른 복음화는 확실히 문화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모든 문화에 대하여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는 어느 한 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이며,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은 인간 문화나 문화들의 요소들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 복음화가 어떠한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문화와 융합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과 복음화는 어느 한 문화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모든 문화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20항).

넷째, 복음선포의 방법

교황은 “복음은 무엇보다도 증거로써 선포되어야 합니다.”(21항)라고 삶을 통한 증거의 일차적 중요성을 우선 제시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1베드 3,15)라고 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하며 “삶의 증거로 선포된 기쁜 소식은 곧이어 삶 속에서 말로 선포되어야 합니다.”(22항)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 선포는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람들의 변화는 곧 공동체 차원으로 귀결된다고 한다. “하느님 나라, 곧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상태, 새로운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 공동체 생활 방식에 대한 귀의입니다. ……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 변화의 표지, 새로운 삶의 표지가 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가시적 구원의 성사인 교회입니다.”(23항)라고 말한다.

다섯째,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살아가자, 그래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성체가 되어 하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복음화 되었는지 자평해 보는 것이 먼저리라. 얼마나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활동하고, 봉사하느냐에 앞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 삼키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며, 그 말씀에 동화되었는지. 내 복음화의 척도가 바로 세상 복음화의 첫걸음이다. 성령께 의지하여!

1. 전례를 통해 얻은 은총에 힘입어 내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복음화 하겠는가? 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정하고 실현해 나가자.



새김 요한 14,12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기도

주님,
 주님은 저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느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하느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느님 사랑의 말씀을 이루어 십자가상 제사를 바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감사드릴 뿐입니다.

성모님 품에 안겨 오늘 저희 앞에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모님 품에 안겨 계신 주님.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당신 생명을 맡길 정도로
 저희 인간을 신임하고 계신 당신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확신과 아량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성모님 품에 다시 안겨 지상 생애를 마감하신 주님.
 주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 죽이기까지 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오늘 다시
 또 맡기시니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자칫 말 많고 실수하기 쉬운 저희의 입에
 주님의 진리를,
 자칫 위선적이고 나약해져 그르치기 쉬운 저희의 행동에
 주님의 사랑을,
 자칫 무책임하고 배반하기 잘하는 저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을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무한하심과 어지심에 감탄할 뿐입니다.

부족하면서도 무엇이든 다할 수 있는 양
 오만을 피우는 저희를,
 나밖에 모르면서도 모든 이에게 도움이라도 되는 양
 자기 정당성만을 외치는 저희를,
 내 생각만이 진리인양
 왁왁거리는 저희를,
 내 행동만이 옳은 양
 하느님인 체하는 저희를
 믿고 당신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으니
 저희를 향한 주님의 중단 없는 신뢰와 관대하심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저 당신의 찬미를 전하오리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주소서,
 저 당신의 길을 펼치리이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저 당신의 진리와 영광을 반사하리이다.

주님, 제게 왕하옵소서,

저 당신의 나라를 이루리이다.

성모님 품에 안겨 계신 예수님,

저희를 신뢰하고 계신 주님.

성모님 손에 들리신 예수님,

저희를 의지하고 계신 주님.

성모님 품에 안겨 생을 마감한 예수님,

저희를 위안 삼아 기대하고 계신 주님.

주님은 저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에 힘입어 주님께 청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 주님의 성체 되게 하소서.

아멘.

부록1

미사 집전 전 · 후 기도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미사 집전 전 - '집전 사제의 지향' (MR2002, 1291)

✠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모든 천상 교회를 찬미하며, 일반적 이거나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제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과 지상 교회와 모든 이의 선익과 또한 거룩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로마 교회의 전례를 따라 미사성제를 거행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려 하나이다. 아멘.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평화와 기쁨, 생활의 개선, 참된 회개의 기회, 성령의 은총과 위로, 그리고 착한 행실에 대한 향구함을 허락하소서. 아멘.

개두포 :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게 하소서.

장백의 : 주님, 저를 결백하게 씻으시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어린양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부록2

전례 봉사자들의 기도

- 천주교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띠 : 주님, 깨끗함의 띠로 저를 매어 주시고 제 안에 사욕을 없
이하시어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

영 대 : 주님,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하오니, 원조의 타락
으로 잃은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 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제 의 : 주님,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3)고 하셨으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
을 누리도록 이를 잘 짊어지게 하소서. 아멘.

미사 집전 후 감사기도 - ‘자극히 거룩하신 구세주께 드리는 기도’(MR2002, 1292)

✠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
스도의 능력의 물은 저를 씻어주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
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소서.
제가 죽을 때 불러주시고,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당신의 성
인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1. 독서자의 기도

- 독서 전 준비기도(독서 연습할 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독서 전 기도(미사 전에)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로마 10,8).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기셨으니
제 마음과 입술에 강복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강복하시어

당신의 말씀이 모든 교우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그들 안에서 생동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독서 후 기도(미사 후에)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요, 저의 길에 빛이옵니다”(시편 119,105).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2. 전례 봉사자의 기도

- 미사 전 기도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제단 가까이에서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불러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전례에 임하기 전에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를
어여뻐 받아 주소서.

미사 중에 저희의 마음과 목소리를 축복하시어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모든 교우들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찬미하도록 돕게 하소서.
저희 봉헌이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찬미이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제단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당신을 찬미함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이 작은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리라 믿나이다.
아멘.

- 미사 후 기도

주님! 오늘 전례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더욱 잘 준비하여
모든 신자들이 마음 가득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느끼는 전례가 되게 하소서.

이 전례를 통해 저희 구원을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2-1. 해설자의 기도(천주교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 해설 전 기도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과 모든 신자들의
거룩한 전례를 해설하는 임무를 맡았나이다.
주님을 공경하고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미사해설에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미사성제에 참례한 모든 이가 하나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드리는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이를 모든 이와 함께 나누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해설 후 기도

주님, 오늘 전례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혹 부족한 점은 메우고,
잘못된 점은 고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더욱 잘 준비하여
모든 신자들이 마음 가득 주님 사랑과 거룩함을 느끼는 전례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이 전례를 통해 저희 구원을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2-2. 가톨릭 전례 봉사자의 기도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당신의 작은 도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제단에 미사 준비를 하며
봉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당신께 영광을 드리며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례에 참례하는 교우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저희 작은 활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미사 준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기도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녀 소화 데레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3. 가톨릭 전례 꽃꽂이 봉사자 기도문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
당신의 작은 도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제단에 꽃을 꽂으며 봉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당신께 영광을 드리며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구원에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저희의 작은 활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꽃을 꽃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기도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녀 소화 데레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3-1.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

- 제단 일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세상을 사랑하신 당신 마음을 닮게 하소서.
 꽃처럼 고운 신앙을 갖게 하시어
 주님 앞에 저희를 봉헌하게 하소서.
 저희의 간절함과 고통을 아시오니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은총으로 치유토록 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꽃을 꽃게 하시어
 주님을 위한 애덕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단 일을 마치고서

자애로우신 아버지!
 제단 앞에 봉헌된 그리스도의 삶처럼
 저희도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제단에 모인 하느님 백성 모두가
 저희의 꽃봉헌으로 주님 현존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에게 단순함과 소박함을 주시어
 제단 앞에 주님 사랑을 전하는 꽃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일원동 성당 제대회 은변(정금영 엘리사벳010-5511-8419)

3-2. 제대 꽃꽂이 봉사자의 기도(천주교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정신과 생명으로 채워 주소서.
 제 존재에 온전히 스며들고 제 존재를 차지하시어
 제 삶이 당신 생명을 비추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빛나시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제 안에 깃들인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안에 머무소서.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시어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제 빛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아멘.

- 뉴만 추기경이 쓰고 마더 데레사 수녀가 매일 바친 기도

4. 성가대의 기도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의 흠숭과 감사 어여뻔 보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몸을 악기 삼아
맑고 고운 영혼의 성가를
아름다운 가락으로 주님 대전에 바치나이다.
소리로는 부족하여도
저희 정성 굽어보사 즐겨 받아 주시며,
마디마디 화음 이루어 노래할 때
독생성자 구속 공로와 부활의 기쁨이
저희와 주님 백성 안에 퍼지게 하소서.
성녀 세실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녀 세실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녀 세실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4-1 성가대의 기도

빛과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크신 은총 표현할 길 없사오나
찬송과 영광 바치려 저희가 모였사오니,
미약한 정성 받아들이소서.
저희의 노래가 풍성하고 만족하는 희생 제물이 되고
공동체를 엮는 끈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노래로 치유하는 소명 받았음을 기억하며,
항상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장엄하고 열정이 넘치는 가슴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작은 새의 지저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사랑하는 공동체
저희 성가대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5. 반주단 기도문

주님!
주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성전에서
미사 때 오르간 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음악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창의와 인내로 반주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복사 기도문

-미사 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제대에서 미사가 거룩하게 봉헌될 수 있도록
신부님을 도와 드리고 싶어요.
실수 없이 복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과 미사에 참례한 교우들에게
은총을 듬뿍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항상 깨끗하게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사 후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어 감사합니다.
성당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훌륭한 사제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록3

참고문헌

-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75.
심홍보, 미사의 영성, 성바오로 출판사, 1996.
안문기, 알기 쉽게 설명한 새미사해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77.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9.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미사 경본 총지침,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9.
_____, 서품 예식(시안),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천주교 대구대교구 전례위원회 엮음, 미사 전례 봉사자 지침서 - 주님 제대 앞에 서기까지, 가톨릭신문사, 2009.

부록4

‘전례 공간의 영성’을 읽고 나서

- 가나다순

신부님께서 미사 전에 늘상 조배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정감어린 신부님의 모습이 낯설지 않음에 읽어나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미사! 주님과 나의 가슴 설레는 만남을 위해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현존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좋은 묵상집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부족한 제가 감히 신부님의 원고를 교정이라는 이름으로 작업(?)한 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 남순성

“전례 공간”이란 말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공간 속에 가시적으로 실존하는 “하느님 나라”로서 참으로 좋고 아름답게 들린다. 물론 하느님과 백성이 만나고, 사제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신앙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성당 전체를 아우르는 언어일 것이다.

몇 년 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개신교 신자인 친구를 본인이 다니는 성당을 둘러보게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나름대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었는데 무언가 사전에 나와있는 용어를 풀이한 것처럼 공허하고 부족한 느낌을 스스로 받았다. 『전례 공간의 영성』을 읽고 나니 성당은 “주님의 집”이고 그곳에 놓여진 모든 도구들과 함께 성당 안의 공간을 “전례 공간”으로 변화 시키며 구체성을 띠고 새로운 모습의 영성이 되어 가슴 속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 때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전례 공간의 영성”을 품고 말하지 않았음이었다.

신자들은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침묵하며 성수를 찍고 자리에 앉는다. 제단을 바라보며 제대, 십자가, 감실을 한눈에 보며 십자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의 공간이 되어 움직이는 미사 전례를 기다리며 작은 기쁨에 설렌다. 이 때 도구의 공간들은 고은 빛의 따듯함으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며 속삭인다. 매번 바뀌는 제대꽃들도 신자들의 마음이 되어 아름답다. 그리고 놓여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시선 속에 봉사자들의 정성된 손길이 담겨 있음을 안다. 그리고 밖에서의 삶을 그대로 봉헌하면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스럽게 바뀌어지기를 희망하며 두 손을 모은다.

긴박한 기다림이 지나고 사제가 들어서면, 이 모든 놓여있는 공간들과 봉사자들과 신자들의 공간, 그리고 공간들 사이의 공간이 움직여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 올려지게 된다. 사제는 이 공간의 조화로 미사를 집전한다. 봉사자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빛이 된다. 백성은 기뻐하며 찬양한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성령은 천사들과 넘나들며 살아있는 공간들에게 키스하시고 선물을 주신다. 이 전체의 공간은 신자들의 요람이다. 신자들은 이 요람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평안해지는 것이다. 이 공간 안에서 선포되

는 말씀, 사제의 성찬례, 그리고 성체는 거대한 하나에서 다시 완전한 작음으로 분화되어 사랑의 본질로 남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신자들의 작은 공간 내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처음 설레던 작은 기쁨은 신자들의 몸과 영혼 구석구석을 공명하며 충만한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 모세의 얼굴 빛을 내면에 담고 파견 문을 나서게 한다.

심 신부님의『전례 공간의 영성』은 “전례 공간”에 들어서며 어떤 영성의 모습으로 정화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공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한다. 그리고 도구의 공간들을 보고, 그 속삭임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기도하라고 일러준다. 다음에는 부끄러움을 털어내고 “전례 공간”에 들어서라고 그래서 더 큰 평화를 누리라고 말한다.

- 송완석

글을 보면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정감어린 신부님의 체험이나 좋은 내용은 저를 계속해서 설레이게 하였는데, 졸업을 앞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님의 글은 아주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제게 다가 온 신부님의 저서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길을 제시 해 주는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좋거나 나쁘거나 하여서 하느님의 존재를 혹여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질

때, 저의 책꽂이에 있는 신부님의 글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저를 높에서 구해 주시리라 것을 예감합니다.

그동안 그냥 무심히 성당엘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례에 대해서 조금 배웠지만 성당의 공간의 대한 느낌이나 생각은 해 본적이 없어서 읽는 내내 감동했습니다. 처음 대하는 내용인지라 저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공간 뿐 아니라, 신부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에 따라 잘 묵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몸으로 익혀 한층 더 성숙 된 모습으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 중에서 우리의 불안전성과 나약성은 특히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공감하였는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또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글을 제게 허락하신 신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도 사랑을 듬뿍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 이토록 좋은 글을 쓸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 송정희

내 기억의 정화와 묵상

전례를 통해 얻은 은총은 매일 미사성제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례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아이처럼 온전히 의탁하게 됩니다.

봉사자로서 전례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건 미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전에는 단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

드리는 미사가 좋아서 편하게 참례했는데, 전례봉사를 맡은 후에는 혹여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사제와 신자들에게 분심 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전례 봉사 초기에는 교중미사에서 보편 지향 기도 후에 예물 봉헌 멘트를 잊고, 평일미사 하듯이 다음 차례로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서는 ‘작은 실수는 모두를 즐겁게 한다.’며 무안해하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싶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의욕만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례의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미사성제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물, 인간관계 등 힘든 상황이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미사와 성체조배를 통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내가 전례 봉사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재능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이 내 삶의 질서 안에서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대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진리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은총을 청해봅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시편 34,9)

- 이인자

전례 공간의 영성

기억과 공간의 정화, 자리의 영성

교회인가 | 2011년 월 일

초판 1쇄 | 2011년 월 일

글쓴이 | 심홍보

펴낸이 | 전갑수

펴낸곳 | 기쁜소식

등록일 | 1989년 12월 8일

등록번호 | 제 1-983호

136-875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109번지

☎ 02 · 762 · 1194-5 FAX 02 · 741 · 7673

E-mail : goodnews1989@hanmail.net

가격 원